

문화복지 실천가를 위한 가이드북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상상하다



서문

1장 | 문화로 꿈꾸는 행복한 일상

2장 | 변화를 위한 만남
복지가 문화를 만나다
문화가 복지를 만나다

3장 | 실천을 위한 가이드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복지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창조적인 문화복지의 실천
내 안의 상상력을 깨우기

4장 | 실천을 위한 탐색
문화복지 유형 살펴보기
사례 깊이 살펴보기

5장 | 함께 꾸는 꿈
문화복지 아카데미 이야기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위한 제안

서문

왜 우리들의 예술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일찍이 우리들의 선조들은 가난 속에서도 상당히 즐겁게 살고 있었다.

심지어 거지에게도 예술과 종교가 있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만 노동과 생존이 있을 뿐이다.

종교는 피곤에 지쳐있고 과학은 차갑고 어둡다.

예술은 지금 우리들을 떠나 있고 참으로 쓸쓸하게 타락했다.

오늘날의 종교가, 예술가란 진선(眞善) 혹은 미를 독점하고 판매한다.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구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새로이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의 미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예술로써 저 회색의 노동을 태우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깨끗하고 즐거운 창조가 있다.

도시인들이여 와서 우리들과 교류하자.

세계여 딴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들을 받아들이라.

미야자와 겐지의 ‘농민 예술개론 강요(綱要)’ 중에서

지난 몇 년간 문화복지아카데미에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기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분들이 어떤 한계에 봉착하고 그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들을 돌보지 못해 많은 분들이 내적으로 소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아카데미는 ‘나’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안의 상상력과 즐거움을 깨울 것인지 어떻게 아카데미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주제가 행복한 일상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알지 못했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문화복지아카데미의 슬로건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실제로 실현하기에는 쉽지 만은 않습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도처에 차고 넘쳐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미루다 보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자본의 화려함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경제적 성장과 발전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전체가 아닌 조각들로 잘게 나누어 해체시켜 왔고 그와 함께 삶에 대한 신비와 신화적 상상력, 공존 감각, 일상 속에서의 예술적 감수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기고 영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 일상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인지 모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만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소비를 통한 감각의 만족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지난 3년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복지아카데미 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경기도문화복지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여 엮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문화로 행복해지는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복지아카데미를 통해 복지와 문화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차되고 중첩되는 영역이며 성장주의와 소비주의 사회에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일상이 복원되고 행복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영역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문화복지아카데미의 교재용으로 제작 되었으나 현장에서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1월 경기도문화복지아카데미 운영위원회

1장

문화로 꿈꾸는 행복한 일상

그대와 나 ‘지금-여기’ 에서부터 사람다운 짓 하며
넉넉한 화해의 품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복지의 지평을, 아름다운 일상의 지평을
- 정순복, 예술과 문화복지 중에서 -

□ 백범 김구선생은 ‘나의소원’ 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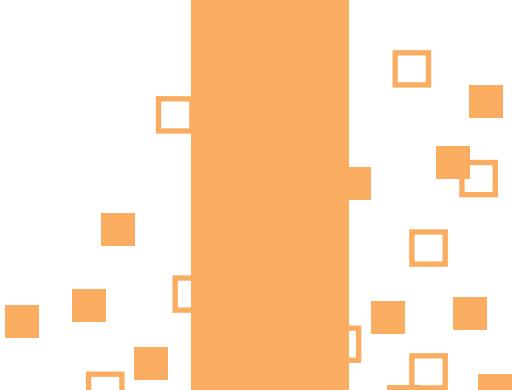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나 유명한 글이고 60여 년 전의 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통찰과 선견지명이 담겨져 있는 선생의 글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높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무력 또한 부족하지 않다. 김구 선생은 경제적 힘이나 국력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경제적 풍요와 높은 국력을 갖게 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에 이르렀다. 높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는 나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졌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고 밤낮으로 문화의 홍수 속에 살지만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왜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 성장의 딜레마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는 빈곤국이었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절실함 속에서 선택한 성장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은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역사상 여느 때 보다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 수치를 보더라도 경제규모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면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OECD국가 30개국 중 24위(2009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행복지수 세계 148개 조사 대상국 중 68위(2009년)로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또한 경제적 가치로 측정 되지 못했던 다양한 유. 무형의 자산들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속에서 충분한 논의초자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회의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부족했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확산은 우리에게 이전 보다 훨씬 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지난 시절에 비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막연한 느낌만은 아니다. 경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가고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떨어지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 행복의 조건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은 다양한 행복의 가치들을 경제적(화폐적) 가치로 환원시켜버렸다. 경제적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성장이데올로기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신화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경제적 수입 그 자체를 통하여 얻어지는 행복감은 예상보다 그리 높지는 않다.

2000년대 들어 런던 경제 대학원 경제 행동 센터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리처드 레이야드는 ‘행복 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이라는 연구 과목을 개설했다. 그는 행복을 재는 척도에서 경제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벌면 별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불행해 한다. 자신들이 거대한 쥐 경주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참가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그들의 기대도 높아만 가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을 감수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에 가선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로부터 얻는 보상을 압도하게 된다.

(조나단 가베이, 마케팅의 교묘한 심리학, p.188)

성장 중심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성장을 통한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속삭이고 있다. 성장 중심 사회는 본질적으로 소비의 확장에 기반 한 사회구조이기에 다양한 행복의 조건과 가치를 구매행위와 소비를 통한 만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마케팅과 미디어는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새로운 소비적 욕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무기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삶의 다양한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전환시키고 자 갈수록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과거 상품 구입의 동기는 ‘필요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품구입의 동기는 ‘필요함’ 이상의 동기가 개입 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행복 질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광고하고 더 많은 소비가 곧 더 많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 일상의 소멸

성장중심사회는 목적 지향적인 사회다. 성장중심사회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들이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소비를 유도한다.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의 사라지고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지 혹은 소비를 유도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결과인 성과가 중요시된다. 이런 성과는 지표로 관리되며 내부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업종에 경쟁자가 많다면 다른 경쟁자에 비해 낮은 가격, 좋은 서비스, 편리한 구매 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내리거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에서 거대한 기업들이 승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도태하게 된다. 성장중심사회에는 이 과정을 자율경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은 소비를 위한 구조로 재편된다. 우리는 이제 추운 날 전통시장에 나가 상인과 얼굴을 맞대고 흥정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려하기 보다는 편리한 주차장과 낮은 가격,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중심사회는

일상을 소비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내재적 가치들 조차 화폐적 가치로 환원 시키고자한다. 그 결과 삶의 신비함은 사라지고 일상의 초라한 모습과 마주 서게 된다. 그런 일상을 대신하여 소비 사회는 환타지(Fantasy)와 스페ktakel(Spectacle)을 동원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욕망을 창조해 낸다. 그럴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욱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이 되어간다.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소비하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일상은 소비를 위한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의식과 가치마저도 소비주의 사회에 맞게 최적화된 상황이기에 삶의 목적 또한 과정에 있기보다는 결과에 치우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과정보다는 결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과정으로 바라보고 삶의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결과적 성공을 꿈꾸며 그 성공은 대개가 경제적 성공으로 귀결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대부분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공부한다. 엄청난 교육 시간과 사교육, 경쟁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모두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참고 인내한다. 청소년에게 현재의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부모들이 그래 왔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를 성공을 위해 현실의 고통을 참고 인내한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의 일상은 고통이고 일상의 행복은 유보된다. 가족들 또한 그러한 과정에 함께 동참한다. 이제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 속 행복마저도 미래의 언젠가로 유보된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원하는 성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은 직장, 결혼 또 다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라는 새로운 이유로 무한히 반복된다. 영원히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삶의 갈증을 또 다시 소비를 통해 달랜다.

성장중심사회는 이렇게 소비를 통한 성장을 지향한 결과 삶을 획일화 시키고 일상을 회색빛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삶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기 삶의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위험한 사회

성장중심사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 사회적자본의 약화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거시적이며 지구적인 문제도 함께 불러 오고 있다. 성장을 위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류의 생존을 넘어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되어가는 세계 경제는 커져가는 투기자본의 영향력 아래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 외에도 나노기술, 유전자변형 등의 검증되지 못한 과학기술의 문제, 부의 편중 문제, 집단 사육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과 새로운 박테리아와 전염병,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은 성장을 위해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넓은 시장을 위해 발달된 교통, 통신의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위협이 높아져 가는 데는 현재의 선진국의 부유한 사람들 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지만 그에 대한 영향에서 가장 먼저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장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 위협이 또 다른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사교육, 안전에 대대한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는 배타적인 주거 공간 등 사회적 위협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유하지 못한 개인들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거나 다양하게 제공되는 보험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부담을 줄이려한다.

성장중심사회는 사회적, 지구적 위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성장만이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에서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사회 만들기

이제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과 경제적 풍요만이 우리의 삶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근래 정치 분야에서 복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현상일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전략의 선택과 수립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논쟁의 틀 안에 갇혀 성장 중심주의 사회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성장중심의 발전전략의 공격적이며 직선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장중심주의와 소비주의가 결합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진보적인 그룹들은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생태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장중심

사회에 대한 성찰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은 자칫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통한 복지 시스템으로 원치 않는 진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 의미 있는 삶, 경제적 안정, 그리고 건강이라고 심리학적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 그들의 경제적 안정이 개선되고 기회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행복이 현저하게 증가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추가적인 수익성이 효과적으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부분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소비수준에 익숙해지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때는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재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질 자격이 있는 것 또는 필수품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쯤 일본인들은 이미 선풍기, 세탁기, 전기밥솥을 만족스런 생활수준을 위한 필수적인 상품으로 보았다. 머지않아 자동차 에어컨, 컬러TV가 ‘필수품’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6년 83퍼센트의 사람들이 의류 건조기를 필수품으로 보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도 빠르게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미국인들의 절반은 이제 휴대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3분의 1은 고속 인터넷을 필수로 생각한다. (월드워치 연구소, 소비의 대전환, p.35)

만약 복지가 성장의 열매를 통하여 제공되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 사회가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복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성장론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며 성장중심사회에서 복지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이미 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성장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장중심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 피해와 위험은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이나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가 될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복지의 영역과 의미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성장중심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이고 행복한 삶인지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한다. 이제 복지는 제공되는 그 무엇만이 아니다. 그간의 성장중심주의가 만들어온 사회적인 부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성장중심주의 발전과정에 소멸된 일상의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 즉 사회적자본 회복의 노력에 대한 참여와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까지 복지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변화를 위한 노력

한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많은 반발과 저항이 뒤따랐다. 그것은 지동설의 과학적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었다. 그 만큼 새로운 변화는 쉽지 않다.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는 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지배적 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는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보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중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협력과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문화와 복지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두 영역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문화와 복지를 전통적이고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둘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기획 할 것인가’라는 지점을 공유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두 영역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이를 통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문화와 복지영역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두 영역의 만남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우리는 당분간 문화복지라는 단어를 어느 한 영역의 하위분야로 정의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 내고자 하기보다는 두 분야의 수평적 만남을 통해 창조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써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성장중심주의가 취하고자 하는 일원론적이고 기계적이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두 영역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복지 를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복지)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문화)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백범선생이 진정으로 꿈꾸신 사회가 문화를 통해 행복한 문화복지 사회는 아니었을까 상상해 본다. 백범선생의 정신을 지표로 하여 문화를 통해 나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2장

— 변화를 위한 만남

강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건실한 문화는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 제러미 러프킨, 소유의 종말 —

복지가 문화를 만나다

우수명(사회복지학 박사)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개념간 문화충돌로 복지와 문화와의 관계 설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시도되고 있다. 문화복지가 이미 고정화된 개념처럼 명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보니 사람마다 그 의미와 뜻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영역도 다변한 문화와 복지의 복합명사인 문화복지를 하나로 개념화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복지의 개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과 주장들이 많이 드러나고 상호 충돌과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개념의 범위로 수렴해가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문화복지, 복지에서 문화 바라보기’를 주제로 한 본 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시대적 담론의 형성 과정에 필요한 작은 문제제기를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였다.

복지에서 문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복지가 있는 위치, 즉 개념과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물론 문화에서 복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혹은 생각나게 하는 관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년 전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사인 나의 직업을 말했을 때의 분위기는 ‘좋은 일 한다’ 혹은 ‘월급은 나오니?’라는 질문과 궁금증에서 복지에 대한 문화적 단상을 읽을 수 있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월급이 없다면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이미지로 우리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는 생각보다 거시적이기도 하며, 정치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생각을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에서 바라보는 문화의 관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복지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김치를 시청 앞 광장에서 수천명이 담그는 모습이 복지인가?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복지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 먼저 복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복지에 내재된 가치 관점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福祉)는 사람이 만드는 복인 복(福)자에 하늘이 내려주는 복인 복(福)자로 행복하고 행복한 삶, 즉 ‘참된 인간다운 삶’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는 welfare라고 하는데 바로 well-being을 의미를 내포하되 좀 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욕구의 충족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조상들은 복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¹⁾해

1)이 분석의 해석은 우수명(2010)의 「사회복지 욕구 다시보기」의 내용을 재수정한 것이다.

보도록 하자. 인간이 만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복(福)자의 우변의 아래에는 밭 전(田)이 있다. 이는 노동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을 형상화 한 것이다. 문화(culture)의 어원이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학설이 있는 만큼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의 가치는 문화와 복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노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바로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밭에서는 노동의 결과로 얻은 성과인 소출(所出), 즉 양식이 있다. 이는 밭 전 위에 있는 입(口)과 관련된 것으로 양식을 먹는 입, 즉 사람의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생존을 넘어 행복감을 크게 느끼기도 하거니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처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입 구 위에 하나를 의미하는 한 일(一)이 있다. 이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으로 소속감과 사랑을 교류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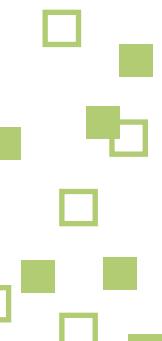
복자의 좌변 부수에 시(示)가 있는데 이는 신(神)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즉, 영성, 참 자아, 신과 함께함, 평안, 종교성(이하 영성) 등을 상징²⁾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복(福)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으로 땀 흘리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로부터 얻은 소출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고 가족, 이웃과 공동체가 되어 마음의 영성에 이르는 것이다.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상징하는 복 지(祉)는 이르다 혹은 그치다는 지(止)자와 영성과 마음의 평안 혹은 신과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하는 신(神)자가 합한 글자이다. 따라서 지(祉)란 영성이 충만하여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복지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이로부터 복지의 주요 영역은 노동과 자아실현, 생존과 풍요, 소통하는

2)인간은 자신과 사회의 의식과 생활의 방식을 문화의 결과로 표현할 때 그림, 글, 형상 등의 상징으로 혼상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상징은 문화적 요소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영성 혹은 평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에 기초해 생각해보면(우수명, 2010),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원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할 때(자아실현의 욕구),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하여 자신과 타자로부터 존중받을 때(존중의 욕구), 사랑하고 소통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소속과 사랑의 욕구), 외부의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거나 그러한 보호를 구축할 때(안전의 욕구), 잠, 식사, 성 등의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생리적 욕구)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행복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행동의 동기들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게 된다.

사회복지는 바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러한 행복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 혹은 그러한 지향이나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복지란 인간 행복을 향한 인간 사회의 고유의 목표이자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복지를 보는 관점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행복하게 사는 조건으로서 욕구의 충족 상태란 어떤 조건과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별적(selective) 혹은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로 구분한다.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인간관과 정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지가 무엇인지를 보는 관점의 정립이 애매해진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민(더 나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³⁾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들은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된 국가 책임 보험제도이다. 이의 핵심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되는 국가책임주의의 강제보험인데 이를 ‘사회보험’ 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 국민연금은 노후 혹은 장애로 적절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소득의 감소와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일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역시 같은 취지이다. 더 나아가 대학까지의 의무(무상)교육, 국민 개개인의 적정선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저렴한 공공주택의 적극적 공급, 건강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제공 등도 역시 보편적 복지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보고 부의 분배를 통하여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강화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수혜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선별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3)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존재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조사와 같은 것이다.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 혹은 가정에 생계비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며, 가난한 이들에게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국가의 원조와 사회 구성원의 자선으로 대표된다.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2005)는 “(수혜적) 원조와 자선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결과가 가장 큰 곳이 아니라 필요성이 가장 요구되는 곳에 투입될 것이다. 따라서 원조는 의존심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영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선별적 원조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인간을 약한 존재로 또는 사전조사를 통해 차별적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원조적 서비스는 사람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다시 불쌍한 인간 혹은 사회의 낙오자라는 인간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낙인 된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사회적 약자로 재생산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낙오자는 게으르고 무지하고 열심히 살지 않은 불성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별하여⁴⁾ 차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복지 실천의 방법이 된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낙오한다고 치부하는 문화가 선별적 복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성공의 상징은 바로 넓은 평수의 아파트, 대형차나 외제 차의 소유, 명품의 소유와 같은 멋진 삶에 있으므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혹은

열심히 아침형 인간처럼 살아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체제-시장주의 혹은 자본주의에 순응해야 함을 배워야만 한다.

보편적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회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하며 시장에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에서 더욱 강조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경쟁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을 향해 경쟁할 수 없는 낙오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 구성원이 문화화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이 존엄성에 기초한 존재론적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한 성공의 상징인 많은 소비재를 소유한 소유(소비)적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가늠하는 가치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해 낸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일하면서 세금 내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한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한 국민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국가는 짊지 않고 의무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 기간의 학비는 매우 저렴하고 잘사나 못사나 누구나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학비를 내고)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자녀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책임지며 의무교육의 책임적 완수를 위해 점심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행위⁵⁾는 매우 타당하다. 더군다나 보편적 복지의 관점이라면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며, 그의 책임을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5)스웨덴, 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선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즉, 경쟁에서 이긴 성공의 결과로 이익(급식)을 얻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누구나 본인의 직접적 노력 없이 급식을 받는다는 것은 경쟁과 시장주의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의 가치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보편적 급여 성격을 갖는 의무급식은 모두들 성공을 향해 경쟁해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상극인 것이다. 더군다나 부자들은 충분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싸구려 공짜 밥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천박한 경쟁주의에서 발생하는 흔한 현상들이다. 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자감세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부자급식은 거부하는 태도야 말로 헌법 제11조에서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귀족인 부자들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망각한 처사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자급식과 의무급식 사이의 최근의 갈등은 바로 보편적 복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선별적 복지로서 시장경제의 중요성의 가치 갈등의 대립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치의 대립은 에리히 프롬(1977)의 글을 인용하여 비유하자면 소비(소유)로서의 복지와 존재로서의 복지 가치의 대립과 연결되고 있으며 복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권력투쟁이 되는 복판을 의미한다.

■ 소비(소유)적 복지와 존재적 복지

지금까지 복지의 이야기는 너무 거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논의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인 미시적인 관점을 옮겨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을 보편적 가치의 현상화인 인간 존중의 존재론적 관점과 선별적 가치의 현상화인 소비(소유)적 관점(이하 소유적 관점)으로 돌아와보자.

복지의 소유적 관점은 밀반찬이나 도시락, 후원금과 같은 경제 서비스, 정서적 지원과 같은 접촉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 지원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이러한 물질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처럼 클라이언트(Client)⁶⁾의 의존성 심화와 존엄성 훼손의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유는 클라이언트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이 되어야만 또한 자산 조사나 욕구사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선별적 가치의 반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계속해서 불쌍한 존재로 남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성실히 노력해 돈을 벌거나 성공하여 서비스를 주는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자와 같이 선의의 기여자가 되는지의 선택을 끊임없이 (본인이 의식하던 아니던) 강요당하게 된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존엄한 인간적이고 존재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원을 개발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수혜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사정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체계적으로 민영화된 복지서비스 기관이

많은 곳은 클라이언트가 불쌍한 자신의 가치를 잘 활용하면 꽤 많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문제의 해결과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선택권은 물론 존엄성을 인정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존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서비스 개념이라기보다 상호적 활동의 개념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에 기초한 실존적 존재로서 자기를 자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이루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해주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적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고 자기 존재를 지키고 싶은 안전의 욕구와 생존과 인간의 본능 충족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존재로서 가치를 확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 관점이다. 이를 ‘존재론적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이러한 관점을 많이 담고 있다.

밀반찬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우수명, 2010). 기존의 밀반찬 서비스는 불쌍하고 가난한 독거 어르신이나 조손 세대의 어르신에게 제공된 서비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정(assessment)을 전제로 하고,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서비스도 유지되는 것이다. 존재론적 가치로 방향을 전환해보면 새로운 밀반찬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소통과 공동체로서의 공유감을 얻기 위하여 초기면 접지(intake sheet)속에 어르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6)클라이언트는 수혜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나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자주 찾아뵙고 서로 가 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걸언(乞言)으로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반찬들을 여쭈어 듣고자 하는 의도로 바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반찬을 말씀하시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에게 ‘반찬거리를 구입하려는데 싱싱한 것을 구매하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반찬은 자원봉사자들이 들어드립니다.’라는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어르신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보러가게 될 때,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가게도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역할도 수행하게 한다. 밑반찬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부탁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옆집 할아버지 것도 함께 가져다주시길 부탁하면서 오늘 수고함의 작은 보답으로 밑반찬을 드리는 것이다. 밑반찬 서비스는 판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장보고, 조리도 도와주고, 가실 때 옆집 할아버지 것도 가져다주시는 어르신께 감사를 드리는 형국이 된다. 이제 어르신들은 당당한 자원봉사자이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자신이 밑반찬을 받는 불쌍한 존재의 이미지를 벗어나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존중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경험하게 하여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리고 밑반찬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불쌍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과거 사회복지사에게 밑반찬을 받기 위해 불쌍해져야만 했던 분들이 사회복지사 앞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게다가 어르신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며, 밑반찬 메뉴를 자신이 결정하고, 장도 자기가 보고, 조리도 하고, 배달도 어르신이 스스로 하게 된다.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밑반찬 사업은 잘 굴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보는 관점을 서비스 제공에서 ‘클라이언트의 존재적 복지-욕구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많은 효과 중 단순히 일부분일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사회복지 활동은 성공, 즉 돈의 가치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물질적 소유가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존중받는 존재로서, 소통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안정적인 삶을 향유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지금 여기(hic et nunc)를 출발점으로 미시적으로는 존재적 복지를, 거시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이는 복지는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은 복지의 대상을 넘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와 문화, 혹은 문화와 복지

인간이 노동과 풍요로운 물질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여도 같급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영성에 대한 성찰과 관련 있는 것이며,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신 혹은 참 삶을 향한 의지로 표현되곤 한다. 이러한 표현은 상징으로 인류 역사의 문화적 결과물들을 낳았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참다운 삶의 완성을 위해,

즉, 노동과 물질과 가족간 사랑을 넘어서는 참 자아로서의 자기 존재감의 확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복지의 어원에 기초해본다면 이는 복지의 최종적 완성의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담겨진 영성의 가치는 인간의 정신과 관점으로 형상화한다. 그 사회의 문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앞서 복지에서 살펴본 보편적 관점으로 복지와 잔여적 관점으로 복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것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되어야하는가 혹은 경제적 가치의 실현이 존재론적 가치를 갖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공-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강요하고 이것이 문화화되어 삶을 지배하는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의 영성은 이 가치에 물들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의 노동도, 풍요도, 가족과 지역공동체도 바로 이 영성의 가치 아래에 물들어버린다. 즉,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없으면 이들도 존재할 수 없는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중에 기초한 존재론적 가치를 더 소중한 삶으로 문화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소수 경쟁의 승리자가 독식하는 경제적 풍요를 위하여 다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문화와 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적인 문화인가 자기의 존재를 경험하는 생산자적인 문화인가의 논쟁과 연결될 수 있다.

많은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문화 프로그램은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오페라를 보러다니고, 야외로 나들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소유적 관점으로 복지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익숙해진 문화적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한 사회복지 실천의 위기와도 당연히 맞닿아있는 문제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본다면 클라이언트가 주인이 되고, 실천과 표현의 중심이 되며,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작은 무대라도 내가 좋아하는 연극이나 노래 등을 연습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며, 그 결과로 지지받고 인정받아 지역사회 내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이자 복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재능이 있다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도록 자아실현의 꿈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다른 이들의 지지자와 존중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 한 생각의 틀은 문화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이 객관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문화와 복지의 실천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는 자유배낭여행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유배낭여행을 꿈꾼다.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원하는 자유배낭여행지로 유럽, 특히 프랑스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배낭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찍은, 흔히 인증 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배낭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자유여행일까?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자유일까? 이것이 소유인가 존재인가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예는 백인과 동남아인을 다르게 보는 우리의 태도이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화된 이미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면 동남아 사람을 우선 생각하거나 3D업종에 일하는 노동자고 위험해라는 문화화된 이미지가 있을 때 그들을 경계하고 위협적인 요소로 바라본다. 그러나 미국 태생의 백인이라도 우리나라에 와 학원에 취업하여 매 월 학원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그도 분명히 외국인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문화화된 인식의 틀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낯설게 만들어버린다. ‘나 원룸 살아’라는 표현과 ‘나 단칸방 살아’라는 표현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방을 가진 집이라는 본질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게 느껴지도록 형상화 된 것도 문화화된 생각의 틀로 인한 차이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시장과 경쟁주의적 관점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관점간의 가치 전쟁이라면, 미시적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문화인가 존재하고 주인이 되는 문화인가의 가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거시적인 문화화의 힘이고 이미지이다. 또한 그것이 일상생활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미시적인 문화화의 힘이고 이미지이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거나 때론 갈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갈등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존귀한 존재라는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 마무리

복지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일상의 삶이고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가 어떤 가치 위에 토대를 세우고 있는가에 따라 인간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존엄성의 실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경쟁사회의 소비적 향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은폐하는 경쟁의 합리화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화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정신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건강한 문화 활동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을 통하여 더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자 존재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존재적 복지보다 성공을 지향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시장주의 가치가 왜곡된 문화로서 자리잡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고, 건강한 문화적 정신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복지로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결정권, 존중되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 부여와 역할 수행, 소통과 공동체의 관계형성, 안정감 있는 복지국가 체제의 지향을 통하여 구현되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의 형성은 중요하다. 또한 문화적 삶의 형태가 이러한 복지적 가치의 실현으로 담겨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지가 보장되는 삶에서 인간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존중의 가치가 문화화된 구조에서는 복지의 보장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향유의 존재에서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인 문화의 향유자로서의 ‘인간’으로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 문화가 복지 를 만나다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사회복지와 문화를 연결하는 글과 말 그리고 행동과 실천에서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와 문화’로 시작되고 인식되어진다. 즉 사회복지의 실천 속에 문화적 방법론을 찾으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 인 인식과 의도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이를 공감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각과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영역의 실천방법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또는 사회복지를 중심에 두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로만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었기에 문화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문화’는 여전히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방식(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복지와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중심의 인식과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 다양한 영역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문학(인문학 교실)의 예를 들어보자.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에 인문학이 가지는 본질을 보려하지 않고 어찌 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인문학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청소년시설, 노인시설 등에서

만들어지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직도 문화사업(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연관람, 단순문화체험 등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들이 대부분이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 노력은 ‘문화 = 프로그램’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화의 본질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문화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총칭한다.

■ 문화란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일상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적이고 가능성 있는 모든 일상들을 의미한다. 즉 연극놀이와 사물놀이 교실은 문화가 아니며 연극놀이와 사물놀이 등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일상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화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이되는 에너지들과 태도들이 바로 ‘문화’의 본질이다. 또한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적 인식이나 행동(장르적 인식 즉 음악, 춤, 연극, 미술 등)에 제한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적 행동, 문화적 일상, 문화적 경험들이 항상 예술적인 것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표현하는 것, 관계하는 것 등의 모든 삶의 태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 문화는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이 아닌 사회복지의 상위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연극’과 ‘연극교육’의 차이는 무엇일까?

연극을 잘 하기 위한 교육 또는 무대에서 연기를 잘 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의도와 연극이 아닌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다른 접근이다. 두 개의 접근에 무엇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라는 이름 안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연극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서의 교육연극과 같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전통적 사회복지의 실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문화’는 아직도 어색하고 쉽게 이해되기 힘든 명제이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 ‘문화적 태도와 환경’이 주는 중요함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단체와 시설의 공간적 환경과 배치 또는 평소의 복장과 소통방식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의 현장들은 아직도 경직되고 획일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적 전달체계’에 대한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해왔던 시간에 비해서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속의 현장은 문화적이지 않다. 문화적 이런 뜻은 영화감상을 하거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등한 삶의 태도와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의 욕구와 갈등이론, 지역사회복지조직론이라는 익숙한 명제들에서 확장되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무엇으로 보이는가?

대부분 “‘ㄴ’ ‘자, 쥐꼬리, 알파벳’ L’ 자, 뱀, 허리띠” 등의 명사형으로 대답한다. 어떠한 명제와 질문에 우리는 짧은 명사형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복지의 실천에는 명사형의 정답보다는 형용사 형 또는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장형의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위 그림을 그린 작가 이외수는 위의 그림제목을 ‘티아노싸우르스가 되고 싶은 지렁이’라고 했다. 매우 주관적 생각이지만 ‘문화복지’란 정답과 같은 명사형이 아닌 하나의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형용사형으로부터 시작한다.

■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위한 스스로의 태도와 노력이 바로 문화적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고민하고 실천하려 할 때 왜 우리는 항상 ‘사회복지의 개념’을 벗어나거나 넘어서서 사고(思考)하지 못할까? ‘를 의심해볼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 자체가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문화’가 아닌 ‘문화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인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방법론과 새롭게 시도해야 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본질적 개념에 대한 고민과 공부도 함께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들이 쌓여갈 수 있다면 좀 더 깊고 넓은 사회복지의 실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문화복지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의 본질은 사회복지의 전문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만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장

— 변화를 위한 준비

이해한다는 것은 사물들이 서로 함께 놓여 있는 방식을 보는 것이며 또한 왜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충동은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인간의 동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이해라는 뺨을 필요로 할 때 지식이라는 돌멩이가 주어진다.

— Spring 1987 issue of UniS —

■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화복지

김영현 (공공문화 개발센터 유알아트 대표)

우리 사회는 문화 혹은 예술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사회적인 편견이 개인에게 이식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화복지의 실천 이전에 문화에 대해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예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과 소질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다고 말한다. 유알아트는 이런 사고방식을 깨고 싶어한다. ‘우리도 예술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술가들이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많이 접한다. 우리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문화복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필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술적 감각을 깨우고 다듬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감각이란 뛰어난 창의력이나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는 나와 주변의 것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내 일상과 우리의 삶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삶을 위한 예술

예술은 어떻게 나와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예술이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매개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기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못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술적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하여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 나로부터 시작하기

예술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신이 행복한 것에 대해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지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내가 행복해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문화도 주체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력은 내 안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화, 예술을 통한 일상의 변화에 대한 시도가 가능하다. 전문가가 아닌 주변사람들과 상호작용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문화적 패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문화가 아니라 일상을 깊이 보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한 창조라는 의미에서 문화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을 수 있을 때 그 에너지의 총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이 학습하고 발전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를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생태계는 어떤지 파악하는 걸 넘어서 지구적 문화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에는 나의 일상을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의 패턴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시작하는 문화복지

문화복지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주변의 것들이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무엇을 놓고 ‘사실이다, 아니다’ 혹은 ‘된다, 안된다’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기준과 틀에서 ‘벗어날 것인지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바로 그것,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즉 용인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우리들의 문화이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자유로운 활동의 상상들을 용인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것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는 것으로부터 문화복지의 시작된다.

우리가 문화복지의 시작을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혹은 관념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나 예술이 관념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공허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정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념으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과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잘 들어주는 것이 문화복지 매개자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문화복지 매개자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삶을 들여다보고 지지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문화복지 매개자들이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 즉 의식주, 일과 놀이 등의 일상적 문화를 총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과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존중과 배려가 문화복지의 시작이다. 문화복지의 시작은 나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

□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보통 휴먼서비스라고 통칭하여 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도 대부분의 복지기관이 정부기관을 모델로 한 관리형 운영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보니 대부분 업무들이 매뉴얼화 되고 정형화 되어 운영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운영 시스템은 관리가 쉽고 효율적이기는 하나 창조적인 운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따라서 근래에는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운영도 중요시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성과와 실적이 중시되는 국가 운영 방향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통한 창조적 조직운영 보다는 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부과된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실무자들은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보와 기술에 집착하게 된다.



개인이 혼자서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일은 많고 실적에 대한 압박은 심하고 시간은 없다보니 A부터 Z까지 매뉴얼을 펼쳐보고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진다. 그러다보니 문제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찾지만 사례는 결국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변화를 원하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 분리된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나누어져 있다. 분리된 삶의 방식만큼 사고도 분리되어 있다.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놀이, 일 등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일과 놀이, 공부와 놀이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일상과 놀이는 분리되어져 왔다. 산업화 이후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삶과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랜 동안 이런 시스템이 유지, 발전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분리된 사회는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온 교육조차 내 삶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아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바보를 만드는 교육인 게 사실이다.

■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이런 분리된 환경과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에너지)은 무엇인가? 그 힘은 내적인 정신의 에너지 그리고 인문학적 사고와 예술적 실천에 있다.

내적인 정신의 에너지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교감과 연대의 능력이다. 인문학적 사유는 분절된 학습과 교육, 분절된 사고와 일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힘이다. 인문학이란 삶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일상의 공부이다. 또한 예술은 일상적 삶과 역사적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가교를 상상하고 실천하게 하는 행위이다. 인문학적인 사유와 예술적 실천의 순환적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한다.

- 행복한데 지친다.
- 빈 잔에 물을 채우고 싶다.



위는 현장 실무자들의 고민이다. 뜻을 갖고 몇 년간 일을 하다보면 내적인 에너지가 소진된다. 그런데 그런 소진된 에너지는 단순한 휴식이나 여행을 통해서 채워지진 않는다. 내 삶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 삶을 분리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소진 시키는 그 무엇이 된다. 문화복지 또한 내 삶과 나의 일 그리고 문화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복지 창조적으로 실천하기

안이영노 (기분좋은 QX 대표)

창조적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기업이나 교육, 예술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창의력이 그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창의력과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 하는 창의력은 문화나 예술에만 전유된 것은 절대 아니다. 상상력은 우리 모두가 타고난 것이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쓰고자 한다면 상상력과 창의력은 길러질 수 있다. 창의력도 후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창의력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해진 목표에 한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에서 창의력은 분출된다. 창조력은 바로 실천이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두바이를 다 보고 와서 그들처럼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실천은 미미하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그것을 기업가정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창의력은 놀이와 장난, 그 엉뚱함과 몽상에서 나온다. 그리고 희망과 열정사이에서 나온다.

■ 창조적 기획

창조적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창조적 기획은 전략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창조적 기획도 기획의 과정이다. 기획의 과정은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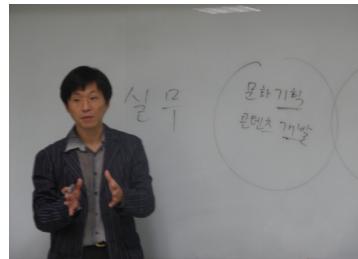
과정이 바탕이 된다. 창조적인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과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삶의 모토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슬로건일 수 있다. 그것은 기획을 할 때 길잡이 역할이 되어준다. 좋은 기획자는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획자이다. 그런 가치가 기획을 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면 기획하는 기계가 될 수도 있다. 정신적으로 소진이 된다. 기획자로서의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무엇을 할지 목표가 정해졌을 때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창조적인 기획이 가능해진다.

□ 가치가 있는 기획자

자신의 가치가 분명한 기획자는 유연한 기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치는 신념과 비슷하지만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기획자는 내 신념과 맞지 않는 기획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기획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념보다 가치이다. 기획이 아닌 학문이나 정치를 한다면 신념이 중요할 것이다. 창조적 기획자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기획을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그 기획안에 자신의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좋은 실천가, 좋은 문화기획자는 현실의 가치를 일부러 살려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획을 해나간다. 상상력은 새로운 의미 부여이다.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 것이 예술이고 상상력이다.

□ 조건절과 양보절 기획

문화기획을 할 때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조건절(If) 기획이 가능해야 한다. 분석적으로 따져보고 좋은 길을 이야기해주는 기획이다. 자기의 신념과 맞고 좋아서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적 사고에 대한 강조이다. 한편으로 양보절(Thought) 기획을 이야기한다. 좋은 기획자, 창조적인 기획자는 남이 안가는 그 곳으로 가서 시도한다. 기업가 혹은 시민운동가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은 항상 척박한 상황에서 기획을 한다. 양보절은 상황을 부정적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게 한다. 양보절을 쓰면서 가능성을 찾고 내 현실을 다독이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 내 안의 상상력 깨우기

노재정(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추라 대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보니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내게는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창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창의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창의성은 양 날의 검과 같다. 창의성을 단순히 능력으로 생각하는 기능중심적인 접근이 있다. 바로 가치지향 없는 창의성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소비주의와 결합되는 요즘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선한 방향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창의성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멀뚱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국가나 전문가들도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세 가지 힘의 조화

창의성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첫 번째는 실천력이다. 실천 없는 창의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천 없이는 창의력도 공상이나 몽상에 불과하다. 창의력은 실천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공상과 몽상도 창의성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창의성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세상의 창의적인 인물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하고 실패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된다. 실천력은 의지와 태도에 관련된 문제이다.

창의성의 두 번째 힘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능력이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고요한 호수나 태풍이 치기 전의 하늘을 보고 인간은 외부의 환경을 감각한다.

이것이 ‘원초적 심상’이다. 이는 원초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심상적 상상’이 가능해진다. 심상적 상상은 예술적 행위이다. 잔잔한 호수를 보고 인간은 원초적 심상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통해 풀어낸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구조적 상상’이다. 이는 구조적인 사고이다. 인간의 문화전반을 이야기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과 철학, 과학 등은 하나의 학문이었다. 이 것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각 분야만의 구조를 갖는다. 예술에서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으로 나뉘지고 이는 또 세분화 된다. 과학도 수학, 물리학, 화학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자신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구조적 상상력이다. 구조적 상상력은 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간의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창의적인 생산물을 내는 것은 아니다.



창의력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감수성이다. 감수성은 외부의 정보에 대한 민감도이다. 원초적 심상을 갖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나와 관계된 환경과 사물, 사람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능력이다. 감수성이 예민하면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여 창작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감수성이 퇴화되어가고 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느끼기 보다는 외부의 강한 자극을 수용하기에 바쁘다. 영상, 이미지, 광고, TV등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감수성은 퇴화되고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적 문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제한적이더라도 감수성을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성은 절대로 키워지지 않는다.



산업화 이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갖고 있었다. 농부들에게도 상인에게도 저마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이 존재하였다. 근대화, 도시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계 부품처럼 되어 가고 상상력과 감수성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상상력과 감수성은 인간 본래의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안다는 것은 상상할 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삶에 새로운 비약을 위한 실천이 예술이고 창의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다시금 인간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 내안의 창의성 키우기

자본주의는 창의성을 도구적•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성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자신의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이 문화 마케팅이고 문화산업이다. 하지만 창의성마저 자신의 삶이 아닌 기업과 자본주의에 포획된다면 인간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휴먼서비스 종사자들이 감정을 소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창의성이 소진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성을 키우도록 노력해야한다. 미래사회는 분명히 창의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문제는 창의적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해 질 것이다. 창의성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태도, 지식, 환경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고 유연한 사고를 하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기분야만의 지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매뉴얼의 암기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가깝다. 자기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하면서 쌓아지는 지식이다. 그리고 창의성이 길러지는데 중요한 것은 창의적 환경이다. 조직의 리더가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조직의 분위기를 창의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창의성은 발현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창의성을 이야기하지만 수직적인 사회구조와 경직되고 권위적인 사회이다. 이래서는 도저히 창의적인 사람이 길러질 수 없다. 잘못하면 모난 돌이 되어 망치로 깨어지기 십상이다. 창의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에게 창의성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인드부터 창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직이 창의적인지를 둘러보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적 창의성

창의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기법을 발상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발상법 안에는 기법 이외에도 창의적 태도의 변화를 위한 교육까지도 포함이 된다. 일본에서는 그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미 발상법 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발상법은 크게 태도기법, 확산기법, 수렴기법으로 나뉜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태도기법은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는 태도의 전환에 관한 강조이다. 창의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관심하게 흘려보냈던 것들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 그렇게 그 것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씩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려보거나 시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창작 중에 하나가 좋은 예술작품이나 공연을 보면 감수성이 키워질 것이라 생각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개인의 감수성의 밭이 충분히 가꾸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동적 예술작품의 감상이라는 것은 자칫 감수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확산기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이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 기법은 생각을 제한 없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억압적이지 않고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처음 만난 관계라던가, 근엄한 상사가 있다던가, 단순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던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창의적 성과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 브레인 스토밍 사례 〉

주제: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무인도 그림 추가_ 세로 5cm이내의 작은 사이즈로 추가요청〉

방법: 브레인스토밍

제한시간: 3분

참가자: 4명 (A~D)

결과:

A: 무인도에서 잘 살기. 관광지로 개발하자.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자. 살 빼서 갈매기타고 나온다. 새로운 물고기를 찾아 요리를 하며 식욕의 즐거움을 찾아 희망을 찾는다.

B: 별자리를 관찰한다. 둘이 결혼한다. 나 아닌 다른 여자는 죽인다. 누드비치를 만든다.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올 것이다 자급자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종교를 만든다.

C: 위성으로 생중계되는 방송프로그램이다. 재미있는 놀이 찾기. 재밌게 개그 쇼를 서로 해주자. 뗏목이나 배를 만든다. 영화촬영을 한다.

D: 역할 분담을 한다. 역할을 주어서 무료하지 않게 살자. 나라를 건설해본다. 동식물 연구 활동을 한다. 땅을 넓혀간다. 동식물과 친구가 되서 대화해보기.

확산기법을 사용하고 나온 결과를 보고 황당하다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방법대로 돌아가거나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상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산기법은 말 그대로 확산을 위한 기법이다.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 관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황당한 결과가 나올수록 발상법이 잘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수렴기법은 확산기법을 통하여 나온 아이디어를 범주화하고 나누고 다듬어 쓸모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일반적으로 확산기법에 문제를 설정할 때는 문제 그 자체를 주제로 놓기보다는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핵심이 되는 상황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으로 변환하여 확산기법을 실행하고 이후 수렴기법을 통하여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현실화 시키게 된다.

창의성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기업이나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민단체나 복지기관 등도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을 어떤 힘으로 움직이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4장

— 변화를 위한 탐색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푸는 해법은 어느 한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 속에 있다.

— 레스리 R. 선을 위한 힘 중에서 —

□ 문화복지 유형 살펴보기

문화복지는 복지와 문화, 교육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의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기에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하나의 사업안에서도 그 세부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복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돌아보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봄으로써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되는 사업들의 문화복지적 위상을 진단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복지의 흐름

문화복지는 80년대 개인의 문화권을 들어 문화향수권을 신장해야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전국적인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펼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삶의 질 세계화’를 외치며 문화의 집 등 각 생활권문화공간을 양적으로 확대하고자 개인 □ 향유형의 문화복지를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 대 참여정부로 접어들며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및 체험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양산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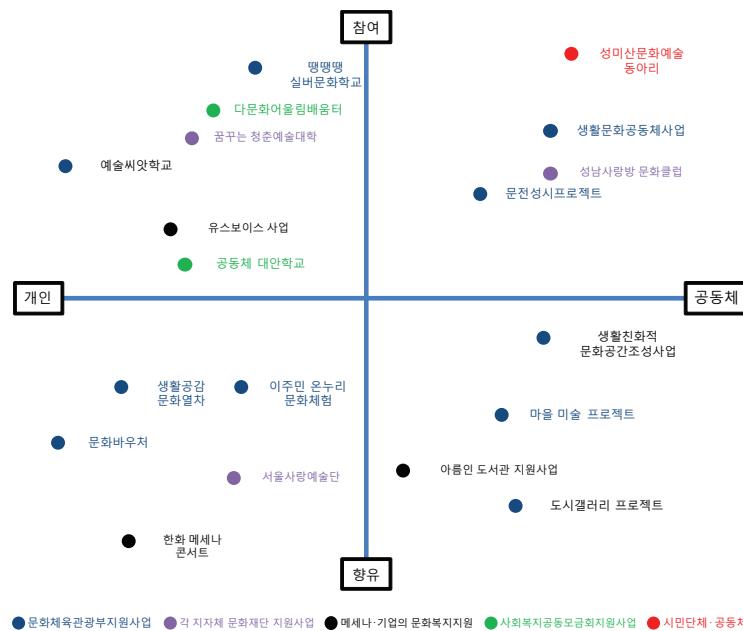
그와 함께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일환이었던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농어촌문화환경 조성의 공동체지향 지원사업은 초기에 예술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내발적인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술가들이 들어와 벽화를 그리고 골목길이 아름다워지기는 하지만 단기적이고 이벤트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기초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유대와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문화복지정책 또한 초기 생활권 공간인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여가 활동 지원과 문화바우처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있어왔다. 이후 복지분야의 문화복지 사업들은 개인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를 복지에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점차 복지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의 문제로 개인을 넘어서 개인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복지에서 각각 실행해 오던 사업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그 지향점들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복지의 사업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앞서 이야기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문화복지 사례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흐름의 중요 키워드인 개인, 공동체, 참여형, 향유형을 걸러내어 그에 따라 현 시점의 문화복지 사례를 배치해보았다.



◇ 각 사례 배치 기준

◇ 개인 / 공동체 :

- 문화행위의 주체에 따라 1차로 나뉨.
 - 사업 취지의 지향점에 따라 2차로 배치

◇ 참여형 / 향유형

- 기획의도 및 진행내용을 검토한 후 1차로 나눔.
기준 예) 수용자의 능동적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수동적참여에 그치는지
 - 각 참여도의 수치에 따라 2차로 배치.
예) 참여형은 능동적 참여의 수치에 따라 배치함.
 - 향유형은 수동적인 참여형에 가까움.
예) 관람 체험 등의 형태

예1) 성미산 마을 문화예술동아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성미산마을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결속력을 다지는데 가장 큰 사업의 목표가 있다. 공동체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분류함.

그래프에서는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향유에서 참여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진보적 관점 보다는 진화론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것을 진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문화생태계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한다. 즉 초기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개별적인 지원과 향유 중심의 방법이었다면 근래에 이르러서는 공동체와 참여의 문제로 그 접근방식이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화복지가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에서 참여와 공동체의 문제로 변화하는 것은 그 간 문화나 복지를 개별적이고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공동체와 개인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개인 □ 향유, 개인 · 참여, 공동체 · 향유, 공동체 · 참여 형태로 구분된다. 각 유형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1: 개인·향유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신의 고양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초기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오다 소외계 층을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재능기부형태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 정차상위

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문화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지원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주민·온누리안 문화체험〉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과 혼혈인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내국인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주민 문화멘토, 문화테마, 다문화체험 교실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다.

〈생활공감 문화열차〉

생활공감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함께 이뤄지며 본 사업은 서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130여개의 공연예술단체가 각각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공감코리아_무용공연
(생활공감 문화열차, 방방곡곡 문화특공대 중)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공감정책팀
공연예술과 TF 제공



꿈꾸는 문화열차..
(꿈꾸는 문화열차 중)
뉴시스 제공

〈서울사랑 예술단, 나랑 YOU랑〉

서울사랑 예술단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시티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환경, 시설에 속한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가 공연 및 예술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기존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30개 공연단 풀 중에서 시민들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배달 서비스이다.



국단아래 서울사랑예술단 나랑YOU랑, 도봉도서관에서
출처: 서울사랑예술단 나랑 YOU랑 홈페이지



클래식 서울사랑예술단 나랑 YOU랑, 한우리오페라단 진행
출처: 서울사랑예술단 나랑 YOU랑 홈페이지

〈한화 메세나콘서트〉

한화 그룹은 2004년부터 매달 소외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시설에 전시 및 다양한 분야의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가 매달 전시회 또는 콘서트를 기획하면 원하는 복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한화가 간단한 심사를 통해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화메세나 (한화메세나콘서트, 오페라의 유령 공연 관람 후) 디지털 타임스 제공



한화메세나

(한화메세나 콘서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아시아경제 제공

■ 유형2: 개인·참여형 문화복지프로그램

문화복지의 대상이 소외계층에서 일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형태도 예술작품의 관람과 향유 보다는 교육과 문화적 참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참여 활동을 통하여 문화감수성과 창의성 등을 계발하고 문화여가 활동이 생산적 여가로 이어지는 문화사회로의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한다.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힘써 온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선발하여 4년동안 매년 1억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장기적이면서 집중적인 지원사업이다.



예술꽃씨앗학교, 울산반천초등학교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정책기사 제공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실행되었다. 전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지원 사업이다.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관련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지원한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화활동을 통한 생산적 여가 활동,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버문화학교 포스터 www.silverang.or.kr 홈페이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노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노인이 문화예술의 능동적 생산자로서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노인특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서울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생산적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실버문화학교 www.silverang.or.kr 홈페이지

〈다문화어울림배움터〉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이주여성의 역량을 키워나가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어울림배움터

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례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스보이스 사업〉

다음세대재단은 역동적으로 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일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창조활용능력이 청소년에게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 미디어창작 활동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체 대안학교〉

발달장애인청소년에게 교육·문화·직업체험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한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공동체대안학교

20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지원사업 사례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유형3: 공동체 · 향유형 문화복지프로그램

이 영역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은 개인보다는 문화복지적 접근이 지역이나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의 문화, 예술 향유나 체험의 기회 확대, 공간의 문화적 개선을 통하여 지역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을미술프로젝트, 길섶미술로 꾸미기〉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소외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의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 중 길섶미술로 꾸미기는 생활공간 주변의 여러 길들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 달동네의 골목이 완성도 있는 벽화와 스트리트 퍼니처로 꾸며져 어두웠던 마을 분위기가 환하게 살아나기도 하였다.



월하리(강원도 철원군 월하리 길섶미술로 꾸미기 모습들)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제공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폐동사무소, 폐교, 마을창고,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문화활동가와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삼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어 침체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부안생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부안 생태문화활력소에서)
부안 생태문화활력소 홈페이지 제공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창의적인 공공미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해 서울다운 멋과 이야기를 만들도록 시민들에게는 향유와 자긍심을 전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갤러리

<http://www.citygalleryproject.org>, 도시갤러리 홈페이지 제공

〈아름인도서관 지원사업〉

신한은행이 전국 200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도서를 보급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친환경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 유형4: 공동체 • 참여형 문화복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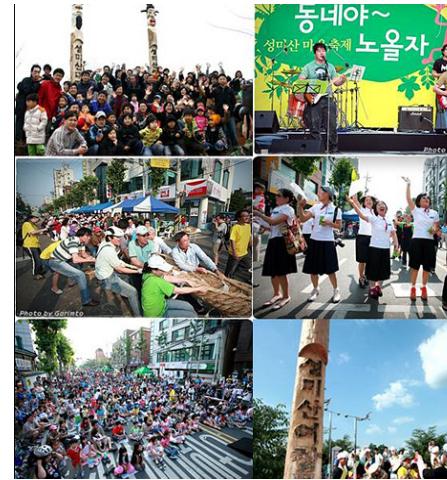
이 영역의 사업들은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진행되는 문화복지사업이다. 일상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꾀한다.

〈성미산마을 문화예술동아리〉

성미산마을은 성미산 개발의 압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소통과 연대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마을공동체 내 다양한 커뮤니티간의 소통 및 갈등 등을 문화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중에 문화예술동아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각 동아리에 각각 1명의 전문예술가의 정기적인 강습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성미산 타악퍼포먼스(마포두레생협 타악퍼포먼스 동아리 ‘소녀들의 반란’)
국정뉴스 제공



성미산 마을축제, 오마이뉴스 제공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성남문화재단이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활동 공간 제공 등의 재정의 지원과 지역사회 공연활동을 지원한다.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문화활동 커뮤니티가 들어나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문화나눔활동을 통한 지역 내 갈등 해소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방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 오케스트라 공연)
성남문화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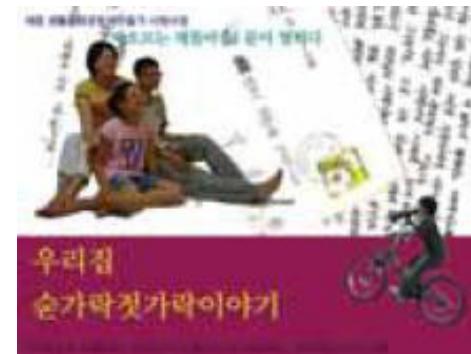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생활 속의 지역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해석하고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커뮤니티를 되살리고 이를 통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지역에 들어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돋고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단을 만들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한다.



생문공 전주시 재뜰마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중

200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_결과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이상 살펴본 유형별 사업에서 우리는 각 사업들의 특성과 목표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문화복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획, 설계과정에서부터 각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과 사업기간 그리고 참여, 협력의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깊이 들여다보기

■ 사랑방문화클럽 아마추어 생활문화동아리

성남 사랑방문화클럽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화예술동호회들의 문화활동을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모임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가의 사적인 일상문화활동을 자체의 문화재단이 공공문화기금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례이다. 이 지역 네트워크 모임은 2007년 30개의 동호회를 주축으로 시작하여 2010년 현재 150여 개의 동아리에서 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클럽을 통한 일상적 문화활동공간 제공 등의 지원과 발표무대, 이들에 의한 축제기획 등에 초점이 맞춰진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와 사랑방 문화클럽축제이다.

사랑방문화클럽 참여자들은 사적인 일상문화활동 동호회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자신의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공헌을 하고 있다.

병원,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헌’ 활동과 주민대상 문화교육 등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이 대표적이다.



사랑방 집중조명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제공

이 사업의 담당자인 박승현 부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민문화동아리는 지원의 수혜대상인 동시에 지원혜택을 사회문화적 가치로 바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순환매개자이다

실제로 조사된 클럽의 과반 수 이상이 이제까지 개별클럽차원에서 사회문화공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시민을 일상문화 활동의 주체로 세우고 자생문화클럽을 강화하면서 지역공동체 속으로 네트워크 공연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조직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문화통화사업의 시너지로 점점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클럽, 동네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사업의 규모에 비해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문화자원의 성과위주 평가로 지원을 결정하는 등 공공행정의 관행적 한계를 보였으나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로 선정되는 등의 주목을 받으며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

■ 다문화 어울림 배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고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통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다. 이주여성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을 인정해주고 지역사회가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을 수혜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이주여성 스스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잘 못할 거라는 편견으로 그 능력의 상향선을 그어버리는 이기적인 시각이 다소 있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이주여성을 주체로 세워 그들이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주여성 및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전면허시험, 구연동화반등의 원하는 것을 교육하고

나아가 그 배움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책읽어주기 봉사활동, 찾아가는 요리나눔 봉사활동, 다문화신문사 기획 및 진행, 공연 준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이주여성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였다.



다문화어울림 배움터 종
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례집제공

이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교육을 받았던 학생에서 교사 및 봉사자로 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주여성의 주체성이 강화되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자신감과 책임감이 상승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이주여성을 한 성인여성, 진정한 지역민으로써 인정해주는 밀거름이 되었다.

사업 구분	프로그램	활동 내용
지역 네트워크 사업	찾아가는 요리나눔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소외지역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요리나눔' 5회 진행.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다문화축제	이주여성 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다문화가족 축제' 1회 진행.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자기개발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기개발프로그램 두 가지를 다문화여성의 욕구에 맞게 직접 기획/구성하여 진행. - 생활영어반, 운전면허시험반, 구연동화반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다문화 신문사를 다문화 여성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문화에 대해 알고 지역사회의 모습을 조사 및 기고하는 등 회보발행
'다문화 신문사'		
다문화 공연봉사회	나라별 2팀의 공연봉사팀을 구성하여	
	공연팀의 주제를 정하고 교육훈련을 진행.	
		지역행사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위문공연 연 5회 진행. - 베트남 스포츠댄스/필리핀민속댄스

그 외에도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이해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멘토링, 사례관리 사업과 병행함으로써 이주여성 개개인과 상담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일본 가나자와시 – 시민 모두가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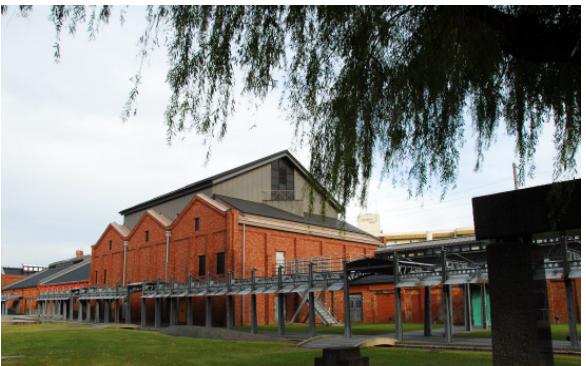
일본의 도시 가나자와 시가 '창조도시, 문화적 생산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전체 인구 46만명의 중소도시이지만 시민 대다수가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펼치는 독자적인 예술문화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나자와 시민들의 상당수가 직업예술가가 아니라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예술활동을 하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로 여길 만큼 자부심이 크며 예술활동 참여도 활발하다.



가나자와 시민예술가들 한국일보 제공

가나자와 시는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활동이 생활 속에서 활성화 되어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가나자와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1~2개씩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문화 유토피아가 형성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시민을 중심에 놓은 가나자와 시의 문화정책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나자와 시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들을 살펴보면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정책의 중심에 있는 시민예술촌은 75년 된 방적공장을 인수해 시가 리모델링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다. 9만 7천m²에 이르는 넓은 부지의

공간에서 시민들은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한 연습과 발표를 맘껏 할 수 있다. 음향과 조명 등 전문 설비가 갖춰져 있음은 물론이다. 365일 24시간 개방하여 그 어느때라도 이용가능하다. 사용료는 2시간에 300엔(약 4천원)에 불과하며 오픈 아래 단 한번의 사용료 인상이 없었다고 한다. 시민예술촌에서는 동 트기도 전에 찾아와 악기연습을 하는 회사원, 새벽 2~3시까지 시끄러운 드럼연습을 하는 직장인 밴드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의 공공시설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자유로운 창조활동의 무제한 보장이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음악, 미술, 연극 각 공방 별로 2명씩의 이용자가 디렉터를 맡아 운영을 주도한다.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오마이 뉴스 제공

둘째, 사립박물관이었던 공간을 2005년 시민들의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창작의 숲이다. 시민들이 판화, 염색, 직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시적으로 각 공예 및 예술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자유롭게 이 곳에 와서 예술을 배우며 활동하고 있다.

셋째, 가나자와의 ‘전통 공예 왕국’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공예 전문 인력 양성소인 우타쓰야마 공예공방이다. 3년제의 소수 정예 공예 전문 인력 양성소로 35세 이하의 미술 관련 전공자들을 받아 수업료 없이 매달 10만엔(약 13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나자와 시는 예술활동을 지금 당장의 돈벌이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 부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마쓰 료이치 관장이 강조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곳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의 공간이다. 세계적인 공예도시의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창작 인력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자와 시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들은 외형상 큰 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가나자와 시의 문화교류부장 겸 문화정책과장인 가와라 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문화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큰 목표가 있기에 1년의 흑자, 적자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각 도시마다 개성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나자와의 얼굴은 바로 문화라는 사실에 시 의회나 시민들 모두 동의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화는 이어질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예로부터 가나자와는 에도 시대 이후 전쟁을 벌이는 대신 학문과 예술을 장려한 봉건 영주에 의해 전통 공예와 다도 등 문화를 꽂피웠던 도시이다. 그 전통과 시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가나자와 시의 전폭적인 예술활동 지원의 문화정책이 있기에 더욱 창조적인 문화를 번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5장

— 함께 꾸는 꿈

우리가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 훈데르트바서 -

□ 문화복지아카데미 이야기

■ 문화복지아카데미 교육 소개

◆ 기획 배경

-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제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급하게 이뤄온 경제적 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삶의 가치와 공동체 간 유대의 가치를 해체 시켰으며, 사회적 결합력 또한 약화 시켜왔다. 그 와 함께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

이제 우리는 경제적 성장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우리 모두는 변화의 교차로에 서 있다.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아우르며 이성과 상상력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사업목적

- 문화복지 사회로의 전환의 기반 마련

문화복지아카데미는 우리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복지와 문화 영역에 국한 시키지 않는 통합적 고민과 실천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문화복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 감수성과 문화 창조력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문화복지사회로 전환 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전환 시켜 가고자 한다.

- 창조적인 문화복지 매개 인력의 양성

변화의 교차로에선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문화창조 그룹이 절대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0 경기문화복지 아카데미’는 이러한 요구에 부흥하고 우리의 삶과 일상속에서 문화복지의 실천과 문화복지적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문화복지 리더를 양성 하고자 한다.

◆ 사업의 비전

문화복지사회 : 문화를 통해 일상이 행복한 사회만들기

문화로 행복해 지는 일상 “경기도 문화복지아카데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문화 창조자 그룹 양성

현장 중심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력의 필요성
문화와 복지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대한 요구 증가
경제적 성장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의 사회적 요구의 변화

◆ 사업의 핵심가치



◆ 교육 구성

과정구분	교육목표	교육내용
입 문 과 정	실천 역량 강화	가치 중심 사고로의 전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력 향상
	창조 역량 강화	창조적 사고로의 전환 상상력과 창의성의 이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
	감성 역량 강화	감성적 사고로의 전환 문화적 감수성 이해 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심 화 과 정	자기 조직화 능력 강화과정	학습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집단 토론과 학습 공동 창작 과정

◆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 소감

문화복지아카데미를 들으며..

경기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 이OO

내심 새삼스럽게 찾아온 나를 위한 생각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

누군가 제안해 준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재미나고 간지러운 곳을 짚어주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이 궁금해진다~

행복이라는 단어, 웃음이 많은 삶이 될 것 같다.

문화복지란?

경기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 심OO

- 자신의 고민에서 주변을 생각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간
- 꿈이 바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면 그 것이 우리의 내일
- 어렵진 않지만 깊이 있는 고민을 끝없이 해나가는 시간
- 시작하는 시간
-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

나에게 문화복지아카데미는..

경기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 권OO

내 인생의 중간쯤을 점검해보며 매주 흥분과 기대감으로 교육에 임했답니다.

신선한 충격과 잘 살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고정관념 탈피, 인식의 전환, 사고의 유연성, 발성의 전환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어느 순간 문득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설픈 앓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침을 경험한 너무나 소중한 '문화복지 아카데미' 넓고 깊은 관계와 소통이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답을 얻다..

경기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 유OO

문화복지란?

▷ 마음의 풍요로 얹어지는 행복한 일상이다.

문화? 복지? ,쉼!

▷ 단어들이 의미하는 개념으로써의 이해보다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가치

∴ 나의 가치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 공유, 그 것이 소통임을 알았다.

❖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제안

-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최종기획서 소개

2008~2010년까지 경기 문화복지 아카데미는 총 2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중 50명이 심화과정까지 수료하며 '문화복지 프로젝트 기획서'로 최종결과물의 성과를 냈다. 그 안에서 미래의 문화복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기 바라면서 우리는 그 최종결과물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려 한다. 교육 사례들을 공간, 예술, 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1차 분류를 하고 다시 문화복지의 주요 키워드 별로 2차 분류를 해 구분하였다.

문화복지 매체의 키워드, 주요 키워드의 선정은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들로 나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그 키워드들이 이 사례들의 특성이 될 수 있겠다. 동시에 그 키워드는 현재 문화복지계의 중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삶의 주체 '나'

관계성

- 그녀들의 수다
- 나비 비상
- 내 인생의 주인공
- 가장 사적이고 ... 포토에세이

자기 삶 기획

- 모험
- 보물을 모아보자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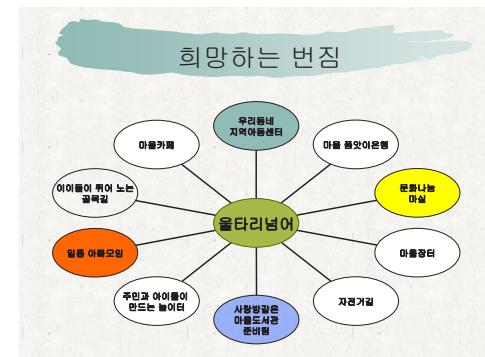
문화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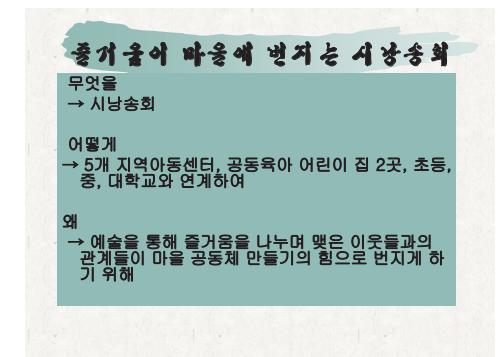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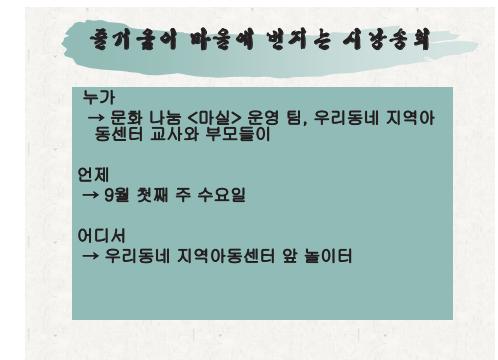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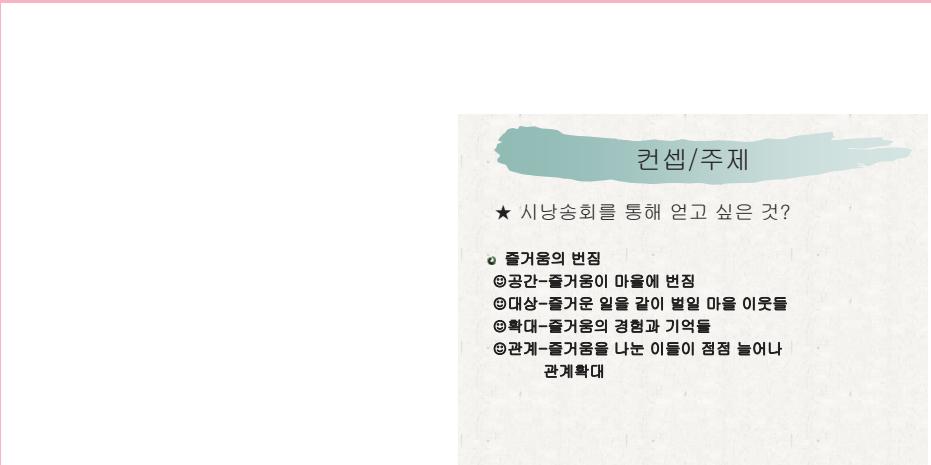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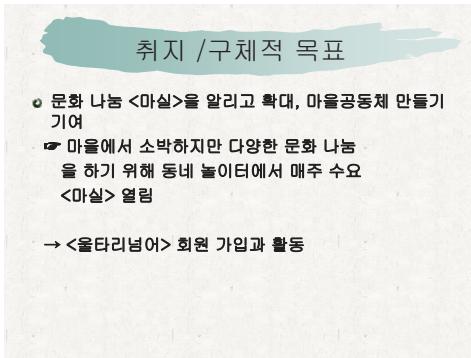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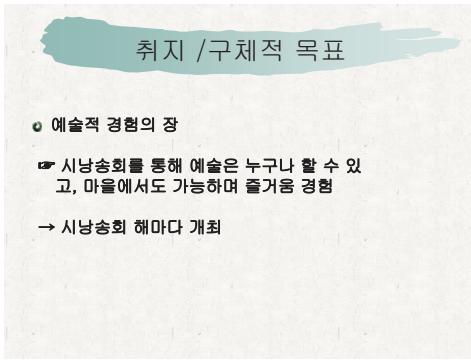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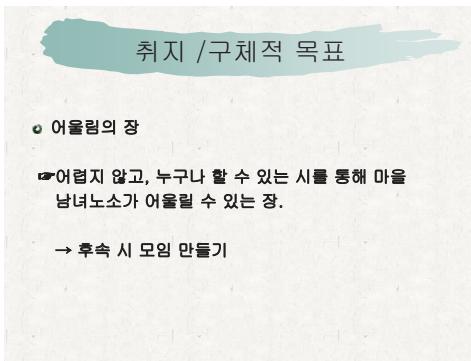
- 폴라쥬
- 샘, 이야기 보따리로 집을 짓다

1. 마을만들기

- 번짐, 즐거움이 마을에 번지는 시낭송회. 김OO

시를 통한 문화나눔을 통해 마을의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즐거움이 마을에 번지면서 진정한 마을공동체로 발전하게 되길 희망하는 프로젝트이다.





- 마을의 여백 채우기 , 박OO

마을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을에 대한 이해, 마을답사 ,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하며 그들의 문화감수성으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여백 채우기를 준비하는 의도

- 선배어린이, 청소년의 눈으로 본 의제를 이어 받아 마을에서 실천한다.
-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고향이라는 애착을 느끼게 한다.
- 마을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내 실천하도록 한다.
-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 실천,실패를 통한 과정에서 주인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한다.

개막시기~

-2011년 4월에서~ 11월 까지

개막하는 장소~

-마을여기, 특히 커뮤니티학교에서 많이

등장인물

- 주연 : 작은도서관 기자단 5명
- 조연 : 동산고 엔토 동아리 8명
- 석호중 사프란동아리 5명
- 액스트라 : 지나가는 마을 주민
도서관에 온 어린이, 청소년
- 연출 :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무엇을 ~

-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 마을 여기저기를 천천히 유심히 돌아보고
-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문화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고
- 어린이, 청소년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 마을의 커뮤니티의 육교를 잇는 작업을 한다.
-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극 순서

- 마을학교(마을에 대한 이해, 마을답사, 마을디자인
학습, 마을 디자인하기)
- 마을 이야기 지도 만들기
- 나눔장터
- 노인그룹총 책읽어 드리기
- 산타가 되어 주세요

극 진행일정

- 4월,5월 : 마을학교
- 6월 : 마을 이야기 지도
- 7월 : 나눔장터
- 9월 : 노인그룹총 책읽어 드리기
- 10월 : 마을 의제 물려주기
- 11월 : 그룹총에 나누어 줄 선물
디자인하기

극을 마친 후 뒤 이야기

- 마을 도서관이 청소년들의 사랑방으로 소통의
장소가 된다.
- 도서관기자단, 동산고 엔토, 마을어린이들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 마을의 의제를 제안하고 마을을 직접 변화시킴
으로서 마을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 어린이, 청소년들의 관찰과 상상력으로 마을의 장단
점을 문화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게 된다.

2. 소통하기

- 행복한 밥상, 권OO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식사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식사공간을 꾸미고 급식실을 마음을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더욱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획사업이다.

행복한 밥상을 준비하여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아무튼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것...

고민의 출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

-간식을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웹의 솜씨가 별로여서□
-먹기 싫은 반찬도 꿀고루 모두 먹어야 해서□
-집에 가면 더 맛난 음식이 있어서□

아니야

내가 꾸민 예쁜 공간에서 즐기면서 먹고 싶어서□



언제가 좋을까요?

11월 넷째주 토요일
12월 둘째주 토요일
12월 넷째주 토요일



어디서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급식실



무엇을

급식실을



자연과 함께 하는 터전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직접 끌라 그려보고 멋진 색깔로
칠해 보기도 하고 키 높이에 맞는 식탁도 갖다 놓고
화려한 색깔의 의자도 들여놓자!



이렇게 변했으면 □

이렇게 해라/네가 해라

이렇게 할래요/제가 할게요

급식실
지지하는 교사
수동적 아동

마음을 나누는 행복 공간
안내하는 선생님
자발적인 아동



- 아지트 낮별의 탄생, 인OO

복지관 내 폐공간을 장애아동과 함께 ‘우리만의 아지트’로 재탄생시키는 리모 텔링 사업이다. ‘갤러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직접 꾸미면 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지트 ‘낮별’이란?

● Who ?

좌충우돌 사고뭉치 인성회 사회복지사와 와자지껄하게
놀아볼 장애아동과 그의 형제자매

● When ?

11월 노는 토요일에 시작해서, 푸욱~ 원활 때마다 수시로!



아지트 ‘낮별’이란?

● Where ?

무봉중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 What ?

때 묻은 부모대기실의 재탄생 !!



아지트 ‘낮별’이란?

● How ?

내가 만든 작품도 전시하고, 유리창에 그림도 그려보고, 하얀 바탕
에 알록달록 색도 입히고, 친구들과 함께 쓴 동화책도 가져다 놓고,
아끼는 스티커도 가져와서 붙여주고, 이름표(간판)도 달아주고,
우리들의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정해보고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드는거야!

● Why ?

내가 복지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사람하는 엄마가
동생이, 오빠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이왕이면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이면 좋잖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아지트에 매직도 생기고, 그럼 더욱 깨끗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꺼야!



아지트 '낮별'이란?

• 기대효과 ?

- 내가 꾸민 아지트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 아지트에 머무는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 생동감 있는 갤러리로 자리매김하여 범인 내의 명물이 될 수 있다.



'낮별' 이름표 달기



예전에 경신장애인 직업체를의 일원인 '카페'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에는 아직도 '카페'라는 간판이 무리를 반긴다.
우리만의 공간으로 재탄생된 기념으로 멋진 이름표를 달아주자!



'낮별'의 끝모를 변신



한번 꾸며놓으면 그걸로 끝? 아니야~ 우리의 아지트는 우리 손으로 꾸미나가는 걸리리야~ 업체든지 새로 만든 책을 기증해도 되고,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봄여도 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전시해도 되고, 아지트를 떠날 때는 깨끗하게 빗정리하면서 지켜낼 때 더욱 빛이 나는 곳이라.



3. 일상에서 문화로 즐기기 (일상문화활동)

- 숨은 보물찾기, 죄OO

놀이, 미술, 체육활동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만의 여가문화를 발견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고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각 교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교사와 아이 모두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명

: 숨은 보물찾기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아동과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화복지지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여가 문화(숨은 보물)를 발견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고자 함.

프로그램 요약

장애인이 경상화의 실현이나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서 문화활동 및 활동의 중요성을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가 인식하고 시설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흥미(여가 및 문화생활), 사회 심리적 흥미를 통하여 직원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은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함께 방학생활을 즐겁게 보내면서 자신만의 여가를 찾음으로써 이후에는 주체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만족감이나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인 축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총5영역~17)



프로그램 - 외부활동

자연을 느끼면서 카메라에 담아 보는 등의 활동과 헛발에서 나온 식물을 이용하여 요리활동을 해본다.

산책을 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을 체험하면서 보고, 듣고, 만져봄으로써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 곤충에 대하여 의미를 찾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껴본다.

(나뭇잎이나 꽃으로 어려 가지 놀이를 해본다. – 목걸이 반지 만들기, 봉송아 물들이기, 나뭇잎 따서 가위바위보 놀이 하기, 누워서 하늘보기 등…)



프로그램 - 놀이

우리 몸의 표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놀이와 체조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신나게 놀이를 통하여 억눌렸던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놀아보자! – 징钹굴리기, 블링놀이, 풍선놀이, 신문지 놀이 등

블럭/ 소꿉놀이 블록으로 여러 가지 모형 등을 만들어 흥미와 성취감을 갖도록 한다.
소꿉 놀이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역할 놀이를 하면서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 - 미술활동

색칠하기 여러가지 색칠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및 색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물감놀이 다양한 기법의 물감놀이로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데칼코마니, 번지기, 실그림, 물감불기 등

함께 만들어 보아요 종이접기 활동과 놀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정서안정 및 취미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현 옷으로 만드는 행복한 일상 간단한 바느질을 익히는 것을 통하여 자립을 돋우고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성과물을 보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프로그램 - 기타

외기걷기 종종의 장애를 가진 생활인에게 외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산책을 한다.
진잔한 음악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 준다.

비디오감상 및 레크리에이션 각 참여자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보충해 주며,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존감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프로그램 - 체육활동

단월 스트레칭 수건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몸의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익힘으로써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훌라후프로 생활의 활복!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훌라후프를 이용하여 체력 단련 및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



기대효과

문화복지의 이해
참여자 전원

성취감, 자신감
즐거운 생활

사회통합 기초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성과



- 뒷밭 가꾸고 요리 만들고, 장OOO

텃밭 가꾸기, 요리 만들기, 자연을 통한 예술활동. 즉 일상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통해 지적장애인에게 자신감과 보람, 성취감 등을 갖게 해주는 사업이다.

진행의도

- 뒷밭가꾸기 활동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다양한 경험
- 곤충과 식물들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소중함
- 먹을거리로 만들어지는 식물의 다양함
- 신선한 재소가 지닌 자연의 맛과 향을 경험
- 직접 재배한 채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쁨을 경험
- 음식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낌, 기분, 속감의 경험

진행내용

- 실외
 - 뒷밭 가꾸기 /놀이 /다양한 예술활동
- 실내
 - 새싹 키우기 /요리 만들기 /다양한 예술활동

진행방법

• 뒷밭가꾸기

- 뒷밭고르기 /텃밭 이름표 만들기 /모종 심기 /모종에 물주기
- 채소 막기 /고구마 심기 /고구마 캐기 /벌레잡기.잡초뽑기

• 새싹키우기

- 씨앗준비하기 /새싹에 물주기 /새싹 자르기

• 요리 만들기

- 새싹비빔밥 만들기 /새싹주먹밥 만들기 /새싹샐러드 만들기
- 새싹샌드위치 만들기 /새싹비빔국수 만들기/토마토쥬스 만들기
- 삼겹살 구워먹기 /고구마캐기 /고구마 구워먹기

• 다양한 예술활동

- 그림으로 요리하기 /과일그림 그리기 /우당벌레 만들기
- 야채로 그림표현/종이접기바구니만들기 /끈으로 거미줄 만들기

기대효과

- 수학의 기쁨을 통해 성취감
-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감각과 지각 능력증가
- 식물을 가꾸면서 누군가를 돋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람
-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고, 재배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협동심 배움

기 간

-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 뒷밭 가꾸기 주1~2회
- 새싹 키우기 주1회
- 요리 만들기 8회
- 다양한 예술활동 6회

4. 문화프로슈머 되기

- 문화놀이꾼, 이OO

어르신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객에게는 공연관람의 즐거움을 공연자에게는 나누는 즐거움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1. 사업의 목적

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 중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어르신이 있으나 단지 자기만족에 그치거나 능력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관객에게는 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공연자에게는 나누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의장을 갖고자 한다.

2. 사업목표

- 1) 목표 1. 각 분야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 2) 목표 2. 공동체 의식 및 봉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 3) 목표 3. 수요처 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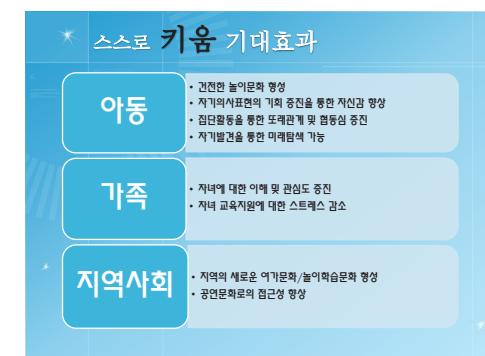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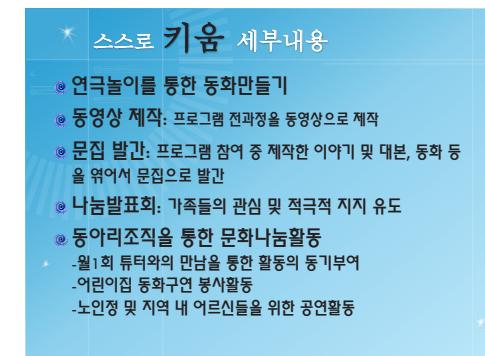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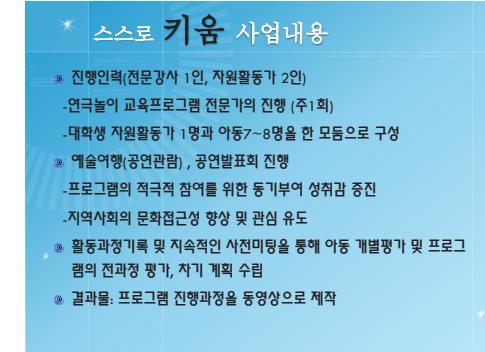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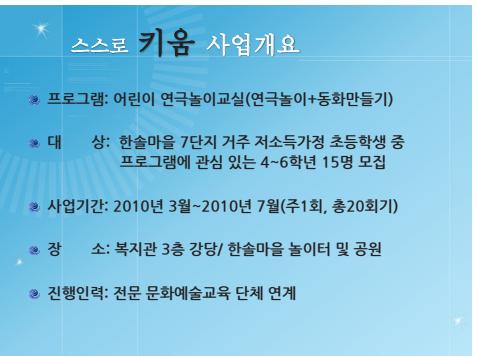
3. 진행일정

내용	세부내용	수행횟수	비고
준비	- 홍보물 부착 - 신청자 접수 및 선별	1회	
교육	- 오리엔테이션 - 소양교육	1회	
육성	- 외부공연관람 - 연수회	2회 1회	
활동	- 외부공연 - 예술제 진행	8회 1회	
평가	- 최종평가 및 향후 방향성 논의	1회	

4. 기대효과

- 1) 외부 공연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향상하고 단원 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 2) 외부공연봉사를 통해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참여도를 증진한다.
- 3) 외부공연 관람을 통해 예술적 안목 및 창작성을 향상한다.

- 슈퍼 주니어, 스스로 키움. 김OO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연극놀이, 동화구연 등의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나눔발 표회를 진행하여 문화나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지속적
으로 지역 내 공연활동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5. 관계에서 해답찾기

- 그녀들의 수다 , 심OO

자신과 직장동료들의 일상, 나누었던 재미있는 상상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직장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화로 제작해 본 프로젝트이다. 조직의 한계 등으로 지쳐있을 때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풀어가고 싶어서 기획했다고 한다.



그녀들의 수다

수다 속 재미난 상상

아이들과 이유없이 놀기

해내고실 달력만들기

마냥 뛰어놀기
즉석카메라 들고 맘껏 찍기

연극 만들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노래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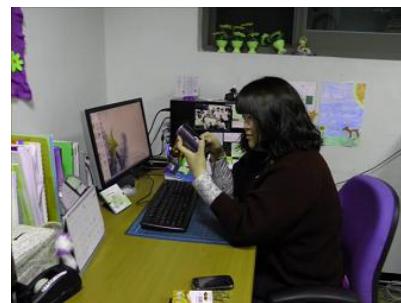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노래방하기

홍보 UCC 만들기
그루시간에 영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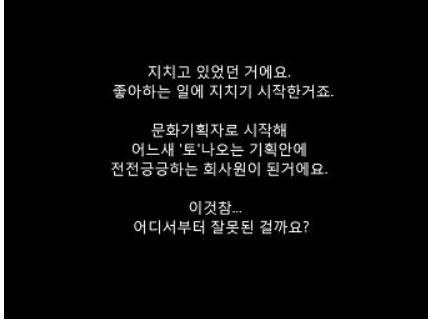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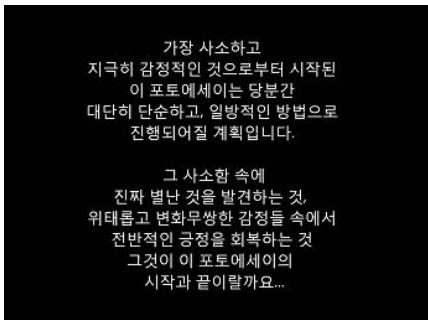
온상에서 바베큐 파티

온상에서 바베큐 파티
에피소드 모아 만화책 만들기

낮잠 시간 만들기
드드드드....



- 가장 사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인 포토 에세이 , 최OO
문화기획자로 지쳐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으로 직장동료 등의 사진을
찍으 면서 그 안에 담긴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자신을 치유하게 되는 서
술방식으로 이뤄진 포토에세이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나를 찾는 여행!
포.토.에.세.이

찬찬히
그리고 솔직하게

저의 삶을 들여다 보려구요.





- 나비비상, 오OO

문화기획자의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고민에서 출발, 본인에게 가장 엉켜있던 ‘가족’ 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멋지게 비상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알

▣ 큰일이다. 알이 너무 갑갑하다.

- 엉켜 있는 가족 관계 : 부모님
- 아쉬운 가족 관계 : 외가 식구들
- 혼란스러운 일 : 내 삶도 영망인데 내가 남의 인생에?
- 새로운 시간의 시작 : 20대가 저물고 30대가 온다.
- 좀 더 행복한 나의 일상에 대한 바람

애벌레

▣ 난 꼭 멋진 나비가 될 거야!!!

- 우리 집 만세 :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
- 서른 예찬 : 늦은 사춘기, 20대여 안녕! 반갑다, 서른!
- 내 일상, 불타오르는 내 삶의 에너지원
- 내 귀에 고백 장치 : “늘보, 나는 네가 참 좋아.”

번데기 한 마리

▣ 이 번데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 번데기 탈출 방법 1

<가족 사진 전시회>

-대상 : 부모님, 외가 식구들
-기간 : 준비 1년, 2011년 11월 외할아버지 생신에 전시
-장소 : 문정동 노인정
-방법 : 올 11월 할아버지 생신에 가족들에게 계획 이야기하기.
1년 동안 가족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기.
일하는 곳, 혹은 자주 가는 장소 함께 가보기.
개인별 인터뷰, 사진 전시회, 뮤직비디오 상영.
초대장 만들기, 사진첩 만들기



번데기 두 마리

▣ 이 번데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 번데기 탈출 방법 2

<아빠 찾아 삼 만리>

-기간 : 내년 1월~2월 사이
-방법 : 아빠의 흔적을 수소문 한다.
여행을 간다.
아빠를 만난다.
인사를 한다.
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

나 飛효과

▣ 나의 날갯짓은 어떤 바람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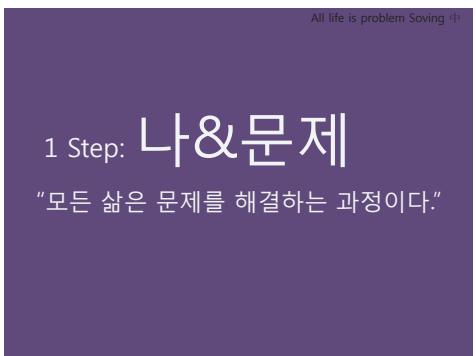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들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한 일상
-상상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자신감.
-한 뼛 더 성장한 나
-행복 바이러스 :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일상의 전염

6. 삶의 주체로서의 ‘나’ 를 기획하기

– 모험, 배OO

‘나’ 를 분석하고 ‘나’ 의 미래를 기획하는 프로젝트이다.

‘모든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전제 아래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며 답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며 답을 찾아낸다.



2 Step: 정리정돈

분류하기, 버리기, 제자리 찾기

연제품이면 나도 정리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





버리기

참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 스님

오랜 슬럼프, 남아 있지 않는 열정, 일중독자라는 오명,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 경쟁심, 원벽주의라는 걸
림돌, 어린 시절 상처 받았던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정체성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 착하게
보이려는 콤플렉스, 공부하다 모르는 것에 대한 쪽팔
림, 거절공포증,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식, 쉬고 싶
다는 생각, 외국어 공부에 대한 집착, 질투,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 헤어진 사람과의 미련, 우울하다는 생
각, 불면증... etc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스인 조르바 中

3 Step: 소통&접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이므로....

스토리의 재구성

되는 데까지 해봐야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다가 보면 뭔가 되어 있겠지

접점의 탐색

나와 세상과의 접점을 찾는 과정은 기록을 통해 들어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 둘 일 따위는 하지 말자구. 스스로 약속도 해보고~ 승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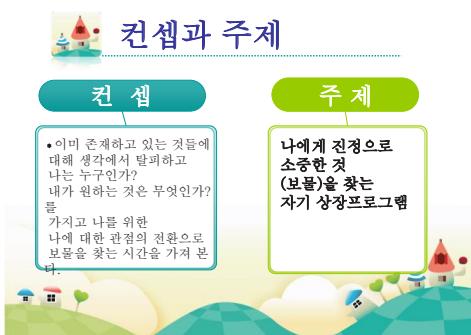
실천감각

해보자구.. 실천감각은 작은 시작에 매달려 있나봐!!!!!! 누구는 리셋도 하는데 나
도 한 번자국 때 보자구!

자기기획 일정

- 보물을 모아보자 , 박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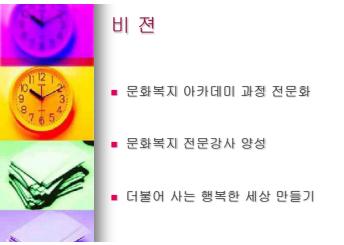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보물)을 찾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7. 문화네트워크

- 꼴라쥬, 박OO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화복지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개요

- 참여 대상
 - 문화복지 아카데미 입원 및 선회과정 수료자
 - 수료자 중 참여 희망자
 - 참여 인원 : 제한 없음
 - 주 제
 - 또 장 0명
 - 부 장 0명
 - 회 비 : 월1만원(일시납 10만원)

활동내용

- 회원간 친목을 위한 활동
 - 경기 테마 놀이모임 개최
 - 문화마당 엿보기
 - 문화복지 아카데미 교육 지원
 - 입문과정 및 실무과정 교육 보조
 - 문화복지 아카데미 온라인 카페 운영
 - 기타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

추진 세부계획

- 2009년 7월 회원가입
 - 2009년 7월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 2009년 10월 놀이모임 1
 - 2009년 1월 신년 놀이모임 2
 - 2010년 4월 놀이모임 3
 - 2010년 7월 정기총회 및 놀이모임 4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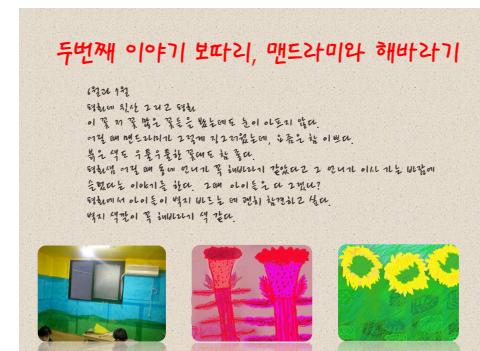
- 문화복지 아카데미 과정 전문화
 - 문화복지 전문강사 양성
 -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샘, 이야기 보따리로 집을 짓다 . 신OO

어린이 복지기관 실무자들이 뭉쳐 참여자들의 실무기관 또는 기관 근처 자연에서 어린시절 추억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소소한 수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아동을 다시 보게 되고 자신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행복한 순환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첫번째 이야기 보파리, 봄 나무 이야기



두번째 이야기 보파리, 맨드라미와 해바라기

세번째 이야기 보파리, 바람과 물



네번째 이야기 보따리, 가을 길 걷기

10월과 11월 우리 할릴 빠울과 할릴



이야기 보따리 집이 되고 길이 되고

12월 4일에는 봄이다.
여름에는 봄이 봄이다.
우리들은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고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헤엄이 체육하고 쇠시계
타는 우리는 놀고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헤엄하고, 그 대신 3월이 되면 봄을 맞을 때
여기에서 놀고는 봄이 놀고는 봄이다라고 하면서 놀고는 봄이다라는 대답
두 번째로 놀고는 봄을 맞을 때 체육하는 걸, 그 놀이에서 봄이 되어야 하는 걸 맞이하는데는 10년도 별로
3월 16일에는 놀고는 봄을 맞을 때 체육을 하면서 봄이 되어야 하는 걸 맞이하는데는 10년도 별로
여기에서 놀고는 봄을 맞을 때 체육을 하면서 봄이 되어야 하는 걸 맞이하는데는 10년도 별로
여기에서 놀고는 봄을 맞을 때 체육을 하면서 봄이 되어야 하는 걸 맞이하는데는 10년도 별로



여기, 이야기를 대신해 짧은 자막

- 참여 : 어린이 복지기관 실무자 15명-20명
 - 기간 : 2010년 2월 ~ 12월
 - 장소 : 인천
 · 주제에 따라 인산4개 지역아동센터 순회
 · 센터와 가까운 문학, 산, 계곡
 · 인양예술원 등
 - 주관 : 별과 민들레
 - 주제 : 별과 민들레 / 미래, 철천과 연대로 만들기
· 도움 : 흥미 공중기획자 / 지역 생태도임 oo / 광공미술단체
 - 예산 :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

샘, 이야기 보파리의 희망

- 작은 것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터전
 - 스스로 우리가 만든 터전

교사, 실무자

- 기억으로 나와 세상, 어린이 다시 보기
 - 작은 것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 소소한 그러나 의미 있는 문화적 실천의 경

- 교사와 새로운 관계 맺기
 - 어린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함께 하는 교

네팔에서 전하는 희망

- 문화복지아카데미 해외 연수 이야기

내 삶의 활력이 되어준 해외연수

장마리아(사회복지사)

문화복지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일주일에 한번씩 외출 할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시작했다. 심화과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고 멋모르고 시작했던 것. 프로그램 기획 또한 나에겐 어려운 과제였다. 마지막 워크숍이 끝나고, 연수를 간다 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네팔 연수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다.

네팔에서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실감이 났다. 카투만두 거리는 온통 시끌벅적, 자동차 경적소리에 귀가 명명할 정도의 소음들. 네팔 품 식구들의 환영을 시작으로 네팔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썩띠 호텔과의 첫 만남. 쾌쾌한 방안의 냄새와 담요의 냄새, 이불로 바꿨지만 꼬질꼬질 때가 타 있었다. 그래 호강하려고 온건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다. 모노허라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암박감과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니 또 다시 어려움에 닥쳤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실무자의 도움으로 버벅거리면서 마치기는 했지만 끝나고도 짐짓한 맘은 어쩔 수 없었다. 재정 선생님과 시현 선생님의 프로그램 덕분에 묻혀서 갔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3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름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렸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은 느낌이다. 그들의 소박한

마음들, 순수한 웃음들, 나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다. 무엇인가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삶이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의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고여 있는 물에서가 아니라 물살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처음 네팔에서의 시작은 불만스러움도 조금은 있었다. 깔끔하지 않은 숙소, 기존의 연수에 대한 인식,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매연이 가득한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적응하기 어려웠다. 실습이야? 연수야? 트래킹은 왜 하는 걸까? 하는 마음 산간마을에서의 휴식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이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잡념들 속에서 연수의 반 이상을 보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흐르면서 느낄 수 있었다. 강의만 듣고, 시설 견학하고 등등의 기존의 연수에 개념이 깨뜨려지는 순간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것들. 내가 부족해도 함께 참석하는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성공적인 프로그램 진행의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또 올랐던 트래킹 숙소에 닿았을 때의 행복감과 휴식의 순간들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서로에 대한 배려들이 고마웠다.

평소에 누려보지 못했던 휴식을 처음엔 어떻게 지내야 하나 안절부절 못했던 시간. 그것도 잠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팔에서 얻었던 깨닫지 못한 에너지들이 작용할 것이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분명 즐거웠던 순간들 행복에 젖었던 순간들도 많았던 연수였으니까. 또한 그들과 함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과 웃음을 나눴으니까. 그것들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연수는 나눔을 통한 성장의 과정

김시현(사회복지사)

문화복지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복지, 문화접근, 문화생활 등 그동안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해오던 문화적인 측면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번 네팔연수에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네팔은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은 편이라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의 대부분을 사립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키고 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워 교육비를 투자할 수 없는 세대가 대부분이다. 네팔 공립학교의 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일적이고 주입식적인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력과 주관적인 의사표현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외우고 익히는 학습방식은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문화의 접근도 마찬가지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고, 문화예술의 관람객·손님으로써가 아닌, 본인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보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동 자신이다. 이에 아동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보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았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네팔 박타푸르에 위치한 베시마을의 모노허라 초등학교. 3~5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2시간씩 총 3회기를 진행하였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그룹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관계형성을 위한 연극놀이 및 전래놀이로 1회기를 진행하였고, 2회기, 3회기는 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을 중심으로 만들고 꾸미기, 그리기 활동을 진행해보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봄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중심이 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에 대한 것이었다. 주변 환경 속에서의 나를 인지해보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았다. 모노허라 학교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참여도가 저조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아동들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표현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에 어색해하기도 하였으나, 회기가 거듭 될 수록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자녀교육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부모님들이지만 발표회에 찾아와 아이들이 만든 작품과 인형극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재미있었고, 새로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아동들에게 일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학습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수업과정을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 청년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음 품NGO 단체에서 모노허라에 들어가 Project를 실시했을 때보다 교사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프로그램 진행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문의가 있었다. 3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방식 및 내용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교사와 청년 활동가,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계속하여 새로운 시도로 연결이 된다면

향후 교육에 대한 마인드 및 접근방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문화, 예술, 교육의 분야와 관련 있는 기관 및 활동가와 만남의 시간을 갖었다. 모노허라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동화작가 램바브 수베디 선생님과 네팔의 사진작가 1세대 마닐라마 선생님, 영화·교육·출판·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활동 중인 Himal Association의 기관방문이 있었다. 복지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행복, 문화가 생활 속에 공존하는 삶,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함께 공유하고 나눔이 필요했던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에서 희망을 보다

노재정(문화기획자)

약 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내려선 네팔의 국제공항인 트리뷰반 공항에는 억새풀이 하얗게 피어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군대 건물을 연상케 하는 단층 건물은 얼핏 보기에도 꽤 낡아 보였다. 모든 업무가 수작업인 듯 입국심사장에는 직원들 앞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긴 줄을 보자 혹 여행 전부터 지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괜한 기우였다. 심사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공항내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을 달랠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0년대쯤으로 여겨질 만한 공항 내부의 모습은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기에 신기했으며 면세점 직원들이 공항 내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재미있었다. 천으로 칸막이만 해놓은 즉석 사진관은 외관에 비해 서비스가 빨랐다. 한쪽 벽면에 설치 되어있는 국내 대기업의 홍보용 PDP TV를 발견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웬지 모를 어색함도 느껴졌다. 이런 저런 잡생각 속에 어느덧 차례가 되어 입국서류 제출과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드디어 심사를 나왔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심사장을 통과하면서의 시간은 마치 나에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판문 같은 느낌이었다. 토끼를 따라 엘리스가 들어갔던 이상한 나라도 들어가는 굴처럼 심사과정에서의 짧은 경험은 이제 내가 들어서는 곳은 내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이라는 암시를 받기에 충분했다.

공합대합실을 지나 공항외부로 나오자 ‘네팔 품’ 식구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카트만두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카트만두의 도로사정은 무척이나 좋지 않았다. 분지(盆地)라는 지형적 원인도 있지만 많은 차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노후 된 차량들에서 뿐만 아니라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충돌로 인한 차량의 폭발로 인한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나오는 매연들로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고,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 도로를 차량들은 방향지시등이 아닌 클락션을 통해 진행의사 표현을 하며 주행하기에 소음 또한 대단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공항에서 경험했던 네팔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오래된 건축물과 그 위로 우뚝 솟아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대형 광고판, 그 밑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지나가는 네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격동하고 있는 네팔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본격적인 연수 일정에 앞서 일행과 함께 환전과 숙소 주변 거리를 탐방했다. 차량을 타고 본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종교였다. 힌두교가 국교이고 인구의 80%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나라이 만큼 길거리 골목 여기저기에 힌두사원과 힌두교의 신들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쉽게 눈에 띠었다. 갠지스의 원류인 파그마티강과 힌두의 성지인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룸비니와 살아있는 신인 쿠마리가 존재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들이 선택한 나라라고 하는 네팔의 모습을 자동차가 아닌 거리를 걸으며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항에서 지금까지 본 네팔의 모습은 어쩌면 아주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이곳에 해외연수를 받기위해 왔다는 것을 떠올리며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지가 무척 궁금해졌다. 그런 궁금증과 함께 네팔연수의 일정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네팔 연수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제3세계 국가인 네팔에서 경제원조가 아닌 쌍방향의 문화적 소통을 중심으로 NGO 활동을 하고 있는 ‘PUM NEPAL’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네팔 현지의 엔지와 활동가와 교류, 두 번째, ‘PUM NEPAL’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Happy Village Project’에 참여하여 네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경험과 방과 후 교실 협력 진행자로 참가, 세 번째, 네팔 내 예술단체의 방문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 네팔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교류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네팔의 국립 예술대학인 ‘렐리겔라 파인아트 캠퍼스’였다. 네팔의 국립대학은 트리뷰반대학교 한 곳 뿐이며 ‘렐리겔라 대학’은 트리뷰반대학교의 70여개 캠퍼스중 하나이다. 그곳의 학생들과 교수 및 학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 들으면서 네팔의 대학생들의 고민과 네팔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중 ‘PUM NEPAL’과 함께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Happy Village Project’에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네팔연수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연수 3일차부터 진행되었던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인 베시마을의 모노허라 공립학교에서 일정이었다. 모노허라학교는 공립학교로 ‘PUM NEPAL’이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Happy Village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그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단체들과의 교류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네팔로 오기 전 한국에서의 사전교육 과정을 통하여 모노허라 학교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준비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언어적인 소통도 어렵고 다른 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베시마을로 가는 길은 즐거웠다. 카트만두를 벗어나자 곧바로 숨쉬기도 편해졌고 소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차를 타고 20분정도만 나와도 곧바로 논과 밭이 펼쳐진다. 아직 네팔에서 카트만두는 다른 세상이고 섬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곳도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도시화를 거쳐 섬은 점점 커져 섬이 아닌 거대한 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네팔의 미래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덜컹거리는 차안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 베시마을에 도착했다. 시골 마을이었다.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시골은 아니라고 한다. 멀리 보이는 몇 천 미터가 넘는 히말라야의 산들을 몇 개 넘어야만 갈 수 있는 마을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모노하라학교는 우리나라의 50~60년대 학교 모습이었다. 교실이라고 말하기조차 열악한 환경이었다. 건물은 낡았고 책상과 교재조차 변변치 않았다. 이런 곳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 인사하고 우리가 여기에온 목적을 이야기했다. 까무잡잡한 얼굴의 네팔 아이들은 순수해 보였다. 처음에 낯설어 부끄러워하는 맑은 눈들이 시간이 지나자 먼저 다가와 손을 잡기도하고 손을 끌고 자신과 함께 책을 읽자며 책을 펴주기도 했고 이름을 묻기도 했다. 이후 우리는 그곳의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품 네팔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관성에 빠져있던 교사들도 이제 무언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 수준은 아직도 문해력 중심의 교육이고 교육 수준 또한 높지는 않아보였다. 무엇보다 학교에는 교사가 2명에 학생이 100명 정도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온 우리의 고민은 더욱 많아졌다. 평가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은 준비해온 프로그램들이 현지의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밤늦게까지 연수단 일행과 품 네팔의 직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처음 준비해온 프로그램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고 베시마을에서 4일간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네팔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이동도 쉽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교육 이후 이어지는 평가와 다음 교육준비로 연수단 일행은 잠 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연수에 참가하신 선생님 중 한분께서는 이렇게 빠빠하고 힘든 연수는 처음이라며 불평 아닌 불평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한 교육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힘이 컸다. 작은 것에도 열심히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었기에 우리 일행도 힘을 받았고 학교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마을의 청년들과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기도 했다.

베시마을에서의 4일간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해보인다는 것이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기뻐했으며 즐거워보였다. 나의 눈에 불편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카트만두와 또 다른 네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팔의 두 얼굴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과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험은 이후 네팔 연수 일정에서 네팔의 겉모습이 아닌 네팔을 사람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정 속에서 만나는 네팔의 예술가,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 네팔의 다양한 민족들, 그들과의 만남은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다. 편한 연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배우고 겉모습을 훑고 돌아오는 연수가 아닌 관계가 만들어지고 서로 자극받고 성장하는 연수였다. 수동적 배움이 아닌 능동적이고 함께 고민하는 연수 과정이었다. 네팔의 겉모습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민과 네팔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네팔연수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보는 거울 같은 연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네팔사람들 또한 우릴 통해 그들의 미래가 선진자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복지는 물질적 풍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속에 있다”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하고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일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다시 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와 있다. 네팔 연수의 기억은 어제

꾸었던 꿈처럼 가물거린다. 하지만 나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은 나의 얼굴이 밝아졌고 여유가 있어졌다고 한다. 내가 행복하니 주변도 행복해 진다. 아무래도 연수의 영향인 것 같다.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일은 나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보다.



문화복지 실천가를 위한 가이드북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상상하다

발행일 2011년 2월

기획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후라

편집 문화복지아카데미 운영위원회

디자인 SISU

인쇄 유일문화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화 031-231-7233

홈페이지 www.ggcf.or.kr

추천도서

나로부터 시작하기

- 『아티스트 웨이』 줄리아 카메론, 2003년, 경당.
- 『예술가가 되려면』 엘렌 랭어, 2008년, 학지사.
- 『사회복지욕구 다시보기』 우수명, 2010년, 인간과 복지.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 『삶은 기적이다』 웬델 베리, 2006년, 녹색평론.
- 『소유의 종말』 웬델 베리, 2006년, 녹색평론.
- 『반자본 발전사전』 볼프강작스 2010년, 아카이브.
- 『에클로지카』 앙드레고르, 2008년, 생각의 나무.

창조적인 실천

- 『소유의 종말』 웬델 베리, 2006년, 녹색평론.
- 『지속가능한 사회』 밀브래스, 2001년, 인간사랑.
-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힘』 존 엘킹턴, 2008년, 에이지21.
- 『지역창생학』 강형기, 2010년, 생각의 나무.

내 안의 상상력을 깨우기

- 『실증주의 시대의 힘 상상력』 진형준, 2009년, 살림.
- 『창의적 자유인』 마이클 미칼코, 2003년, 푸른솔.
- 『아이디어 놀면서 낚아올려라』 클리스 바레즈 브라운, 2008년, 아름다운날.